2022 11
Vol. 189

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한강노들섬오페라 〈미술피리〉 | 2022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는 서울문화재단 창립 이래 처음 제작하는 야외 오페라로,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오페라 작품을 극장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무료로 선보여 일상 속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예술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노들섬의 잔디마당을 무대 삼아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한강을 배경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클래식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문턱은 낮췄으나 극장 안 컨디션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노들섬 잔디마당에 오페라 〈마술피리〉를 위한 야외 특설무대를 제작하고 계단식 객석을 확장해 약 1,200석의 좌석을 만들었다. 또한 영상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무대를 구현하는 등 노들섬 잔디마당의 야외 정취와 어우러지는 오페라를 선보이고자 했다.

검증된 프로덕션 또한 주목할 만하다. 로마 국립예술원 출신으로 〈카르멘〉 〈호프만의 이야기〉 〈투란도트〉 등 한국과 유럽에서 다수의 오페라 연출로 실력을 인정받은 이회수가 연출을, 국내외 오케스트라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는 마에스트라 여자경이 지휘를 맡았다. 여기에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유성녀, 테너 이명현 등 국내외 오페라계를 이끄는 실력파 예술가 100여 명이 한 무대에 올라 작품의 완성도를 더했다.

〈마술피리〉는 초연 당시 이탈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징슈필(Singspiel, 중간에 대사가 포함된 민속풍 독일어 오페라)'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집약된 오페라다. 소박한 가곡부터 아름다운 아리아,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중창,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한 작품에 녹아 있어 누구나 오페라의 재미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이번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는 독일어 아리아로서 징슈필의 감동을 그대로 전함과 동시에 위트 넘치는 한국어 대사를 더하고, 양쪽 대형 스크린에 국영문 자막을 제공해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선보였다.

서울문화재단은 한강노들섬오페라를 시작으로 시민 관객들이 순수 공연예술 장르를 좀 더 부담 없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Contents

2022 11 Vol. 189

커버스토리 00 —— 01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테마 토크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칼럼 06 —— 07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리포트 1 08 —— 11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간 소개

리포트 2 12 —— 15
국내 장애예술인 활동 사례

스낵 16 —— 17
11~12월 전시 추천

이슈+서울

이슈 1 18 —— 19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

이슈 2 20 —— 21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슈 3 22 —— 23
원로배우 티켓 파워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오니트(주)(장보영,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장가은, 신제헌)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124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트렌드+서울

문화인 24 —— 29

국악인 안숙선

정연석의 서울 산책 30 —— 33

독산동

공감 1 34 —— 35

책 《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와 《개는 천재다》

공감 2 36 —— 37

전시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작은 방주〉와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서울 찰나 38 —— 39

이야기+서울

김송희의 썰(說) 40 —— 41

〈환승연애2〉와 〈나는 SOLO〉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임상수 감독의 〈파로호〉

윤중강의 국악 실록 44 —— 45

2022 〈돈화문 나들이〉

웹진 [비유] 46 —— 47

눈에 보이는 사랑

웹진 [연극in] 48 —— 49

국악 브라스밴드 시도 X Tory X 민수민정 〈연희하는 여자들〉

웹진 [춤:in] 50 —— 51

고난을 딛고 작업을 발전시키기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편집후기 60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Seoul Disability Arts Center

2007년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시작한 '잠실창작스튜디오'가 2022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이름과 자리를 바꿔 다시 태어난다. 잠실을 떠나 대학로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연대를 꿈꾼다.

Since 2007



시작이 반이다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

2007년 10월 5일, 서울시는 구 잠실실내체육관 내 중소기업판매장 자리에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위탁 운영했으며 123평(약 407㎡) 규모로 창작 공간, 사무실, 교육 및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수별 14명의 작가가 입주해 작품 활동을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Since 2011



더 탄탄하게

서울문화재단 운영 및 새로운 '잠실창작스튜디오'

2011년, 서울문화재단이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을 시작해 2012년 7월,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에는 입주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대미술 강의 및 작품 평론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스쿨링'부터 창작 실무 및 평론가 1:1 매칭과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굿모닝 스튜디오'까지 다방면으로 입주작가의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15년간 150여 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Since 2013



후원을 통한 발판 마련

장애아동창작지원사업 '프로젝트A' 신설

2013년에는 입주작가의 편리를 위해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 재개관했다. 또한 기업의 후원에 힘입어 2013년부터 장애아동창작지원사업 '프로젝트A'를 신설했다. '프로젝트A'는 잠재적 장애예술인 풀 양성을 위해 시작했다. 기업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장애예술인을 함께 키워나갔다. 팝아티스트, 사진작가, 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와 협업해 2020년까지 41명의 장애예술아동을 지원했으며 해당 아동들이 최근 들어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입주작가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적 지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개의 이름, 15년 역사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Since
2017



더 넓은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7년에는 전 분야의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기존의 입주작가 형식의 시각예술 지원에서 넓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 장애예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에 나섰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전시, 공연 개최 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4건, 12억 7,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로써 장애예술 전 분야의 창작 흐름을 선도하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기반이 마련됐다.

Since
2019



같이 있는 가치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 신설

2019년부터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와 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생산 및 확산했다. 포럼, 전시, 연구의 방식으로 현장과 예술, 지식 축적 전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또 다른 문화다양성의 장을 만들고 있다. 공동창작워크숍은 입주작가들이 다른 분야의 작가와 협업하며 서로 자극을 받고, 작품 스타일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됐다.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장애예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담론을 마련했다.

Since
2022



대학로에서 더 큰 꿈

대학로 이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2022년 가을, 대학로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잠실'에서 '서울'로 둥지를 옮기며 서울을 대표하는 장애예술인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았고, '장애예술'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기반으로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과 담론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스튜디오'에서 '센터'로의 변화는 비非입주작가 및 다른 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이음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르코미술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가 위치한 대학로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활력이 넘치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그래도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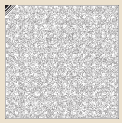
1

1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11월 대학로에 재개관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바뀌었다. 장소도 송파구 잠실동에서 종로구 동숭동, 즉 대학로로 이동했다. 왜 대학로일까? 왜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 사업의 방향을 나누고자 한다.

/ 물리적 필요: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잠실창작스튜디오(이하 잠실)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한 켠에 자리한 장애예술인 전문 레지던스였다. 2007년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개관했으나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시작하고(2011) 명칭을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바꾸면서(2012) 현재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라는 물리적 변수가 생겼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세월이 흘러 노후화돼 전체적 개보수가 불가피했고, 서울시 동남권개발계획(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전면 리모델링[1] 시기가 다가왔다. 물리적·운영적·상징적 측면에서 다음을 모색해야 했다.



/ 왜 대학로인가?

스무 곳 이상의 공간을 탐방하고 답사한 끝에 대학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잠실의 한계와 대학로의 가능성을 함께 타진하며 내린 결론이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그 자체로 안전하고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일종의 섬 같은 곳이기도 했다. 대형 이벤트나 스포츠 경기가 없는 날은 쥐 죽은 듯 조용해 외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로에는 장애예술 관련 중심 역할을 하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르코미술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까지 위치해 있다. 연대와 협력을 꾀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한편 대학로를 오가며 후보지를 좁혀가는 동안 마로니에 공원과 거리를 활보하는 수많은 장애인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 도심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며 이곳에서는 연결과 연대를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

큰 고민은 명칭 변경이었다. 이미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바뀐 맥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장애예술'을 전면으로 다시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현장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확정했다.

1 '잠실'에서 '서울'로: 초창기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한 많은 창작공간은 지역명을 딴 명칭을 갖고 있었고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후 장르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업 예술인 위주로 창작공간의 기능이 집중됐다. 2010년대 중반 각 자치구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잠실'에서 '서울'로 개명하는 것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장애예술 창작공간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2 '장애예술'을 굳이 내세우는 이유: '장애'라는 단어는 여러모로 양가성을 지닌다. 앞서 잠실창작스튜디오로 개명했던 데는 장애라는 타이틀이 지닌 사회적 편견을 지우고 입주작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아직 그러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잠실'이 '서울'로 바뀌었듯이 2022년 현재, 이 공간이 무엇을 대변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장애예술'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장애라는 정체성 또한 개별성과 고유성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장애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직면하고 재단이 지닌 인적·물적·재정적 수단을 집중하기 위해 확실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 '센터', 역할의 확장: 스튜디오는 개인 작업실을 뜻한다. 잠실의 경우 2017년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공연예술과 문학을 포함하는 전 장르를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는 '같이 잇는 가치'를 통해 담론 확산 프로그램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작업실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앞으로 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로 개명을 결정했다.

/ 한 발짝 더 앞으로

대학로의 새 공간은 잠실보다 작다. 면적이 567㎡에서 301㎡로 줄었고 입주작가실 또한 12개실에서 6개실로 줄었다. 물리적 제약이 커진 만큼 내용적으로는 더 확장된 역할을 하기 위해 입주작가뿐만 아니라 비입주 장애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도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내세우며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운영은 서울시 문화시정에서 중요한 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공간과 명칭의 변화가 현장 장애예술인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여전히 조심스럽다. 도덕적 올바름과 정책적 실행 사이에서 매번 고민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테다. 정책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예술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일하는 센터의 직원들을 신뢰한다. 지난 15년간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적의 선택으로 운영해 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제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서 이 분야에서 작은 역할을 꿋꿋이 감당해 내길 소망한다.

글 이승주_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매니저 | **사진** 서울문화재단

1 해당 공사는 착공 시기를 기준으로 최소 6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은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후 재입주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이후 공간 계획과 전체적 운영 철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가 그것이다.

개별적 특성을 가진 각각의 존재를 위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간 소개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바닥의 단차를 없앤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전경
2 휴게공간
3 입주작가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전 잠실창작스튜디오)와의 인연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의 '같이 잇는 가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정확히 말하면 0set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공간구성 프로젝트에 건축가로 참여했고, 약 3개월 동안 잠실창작스튜디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간을 둘러보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내밀하고 사적인 예술가의 공간과 대중과의 접점을 고민하는 운영진의 공간이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다. 무엇보다도 예술가가 작업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작업 방식에 따라 어떤 공간 혹은 시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건축은 삶의 배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에 누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간 설계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운영진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작됐고,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함께 확인하며 발전시킬 수 있었다.

/ 한 지붕 아래 예술가와 운영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영역과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진의 영역이 존재할 때 이 두 영역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예술가와 운영진 모두 서로의 사적 영역이 보호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접근과 소통은 가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공간구성에 많은 영향을 줬다. 먼저 예술가의 작업실을 가장 안쪽에 배치했고, 운영진의 사무실을 주출입구에 가장 가깝게 배치했다. 벽으로 가려진 서로의 영역은 문에 설치된 유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각 실의 출입문 또한 예술가와 운영진의 동선 및 시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그와 동시에 두 영역 사이에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소통을 위한 느슨하고 유연한 공유공간을 계획했다. 주출입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탕비실, 휴게공간, 워크숍룸, 공동작업실 등 함께 사용하며 만남을 유도하는 공간이 배치돼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한정된 공간을 더욱 넓게 느끼게 해주며 영역과 영역 사이에 빛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휴게공간은 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공간으로 다소 채광이 부족한 작업실에서 예술가들이 나와 편안히 휴식할 수 있다. 또한 워크숍룸은 무빙월moving wall을 설치해 평소에는 휴게공간과 함께 하나의 큰 공간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벽을 만들어 회의나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벽과 문의 합판 마감은 공유공간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무실과 작업실 영역을 구분한다. 사무실 벽은 문과 같은 높이의 합판으로 마감해 사무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했고, 작업실 벽은 합판의 높이를 낮춰 문을 통한 개별 작업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다.

지금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기존 잠실창작스튜디오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 규모라 대중과의 접점 구실을 하던 다목적실은 없어졌지만 잠실창작스튜디오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던 윈도우갤러리는 주출입구 옆에 작은 버전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리고 흐르듯 이어지는 공유공간과 복도는 기획

2



3



4 색상이 들어간 타일은 주변의 색과 대비돼 공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주출입구와 화장실에 자동문을 설치했다.
6 시력이 낮은 사람을 위해 공간을 안내해 주는 핸드레일과 점자블록를 설치했다.
7 워크숍룸은 무빙월moving wall을 활용해 휴게공간, 또는 분리된 회의실로 쓸 수 있다.

에 따라 벽면을 활용해 오픈하우스 같은 형태의 이벤트가 가능한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예술가와 장애'예술가'를 위한 공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할 작가는 '장애'예술가로 분류되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장애'와 '특수성'이란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마치 예술가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디자인 관점 외에 장애예술가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범주를 위한 특별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장애'라는 프레임을 떼어내고 '개개인'의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설계에 더욱 도움이 된다. 결국 이곳에서 작업하게 될 예술가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개별적 특성을 가진 각각의 존재로서,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접근하고 공간을 이용할 장애예술인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주출입구와 화장실에 자동문을 설치했고, 작업실의 문 폭 역시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또한 손잡이 및 스위치, 비상벨의 높이를 휠체어 이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낮췄다. 벽의 합판은 휠체어가 부딪칠 경우를 대비해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했다. 시력이 낮은 사람을 위해 공간을 안내해 주는 핸드레일과 점자블록를 설치했고, 센터 안을 이동하는 동안 바닥에 단차가 없도록 계획했다. 탕비실과 개수대의 색상이 들어간 타일은 주변의 색과 대비돼 공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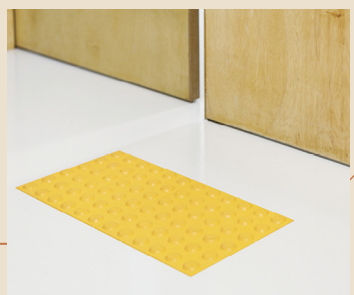
4



5



6



개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더불어 창작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센터에서 보내는 예술가를 위해 고민한 지점이 있다. 먼저 천장의 필요한 부분만 마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골구조를 노출해 열린 느낌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기존 잠실창작스튜디오 작가가 가장 원하는 것 중 한 가지, 회화 작업 후 물감을 버릴 수 있는 개수대를 준비했다. 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실에 대한 작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작업할 때 문이 있는 붙박이장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오픈 선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구 계획에 적용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도 몇 가지 설계 의도가 담겨 있다. 작업실을 포함한 모든 벽면에 그림을 걸거나 무언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를 구성했고, 소리에 민감한 예술가를 고려해 모든 벽체에는 흡음과 차음이 계획됐다. 또한 외부와 접하는 외벽에는 단열을 추가로 계획해 조금이나마 실내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자 했다.

/ 비워진 공간, 채워질 장소

돌이켜 보면 2021년 12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2년 10월 시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운영진과 여러 차례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다. 수차례의 회의에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했고,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공간을 답사했으며, 재료 하나를 고르기 위해 여러 가게를 함께 돌아다녔다. 시공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운영진은 건축가의 의견을 존중해 줬다. 건축가의 생각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함께 비워진 공간으로 실현되고, 그 공간은 시간의 축적과 함께 많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 채워진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채로운 삶이 펼쳐지는 편안하고 아늑한 배경이 되기를 바란다.

글 김성화_건축사사무소연화 | **사진** 서울문화재단



7

Seoul Disability Arts Center

그래서 우리가 쓰기로 한 이야기들

국내 장애예술인 활동 사례



2



1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각도를 넓혀준 사례가 있다. 바로 ENA의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이 드라마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대한민국 대형 로펌의 신입으로 들어가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많은 시청자에게 쾌감과 감동을 선사했다. 물론 드라마의 이상적 상황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장애 이면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화폭 위에 드러나는 내면의 풍경: 시각예술 분야

'미술계의 우영우'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지난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20일 동안 개최됐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체감하는 첫 번째 행사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사회 각계 유명 인사를 포함해 약 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은 전시 작품의 개성에 감탄했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특별전에는 공모를 통해 총 50명의 장애예술인이 전시 작가로 참여하고 그들의 작품 60점이 소개됐는데, 그중에는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에 배우로 출연한 정은혜 작가도 있다. 다운증후군 발달장애인인 정 작가는 만화 작가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2013년부터 그림을 그렸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정 작가의 따스한 시선이 화폭에도 옮겨져 독창적 캐리커처로 완성됐고, 이후 정 작가는 무려 4천 명을 웃도는 사람들의 얼굴을 화폭에 담게 됐다. 그는 최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을 담은 첫 번째 그림 에세이 《은혜씨의 포옹》을 출간했다.

이번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통해 주목받은 또 다른 작가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걸어둔 작품으로 이름을 알린 김현우 작가가 있다. 발달장애로 소통이 어려운 김 작가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화소)에 담아 추상적 형태로 재구성한다. 수학 공식, 음표, 친구들과 선생님의 이름 등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남겨놓은 기록이 현재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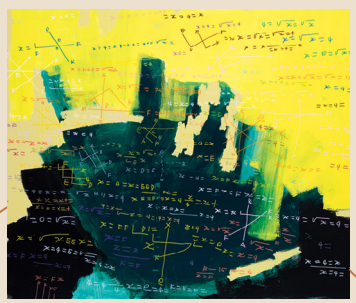
11월 대학로에 재개관하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과거 '잠실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왔다. 앞서 소개한 정은혜, 김현우 작가와 더불어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출신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이로 전동민 작가를 꼽을 수 있다. 청각장애로 말미암아 발달하게 된 시감각으로 일곱 살 때부터 다양한 색감의 그림을 구현해 온 전 작가는 최근 서울의 빛과 야경을 주제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삶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전 작가는 신한갤러리 기획전을 비롯한 14회의 개인전, 영은미술관 프로젝트전을 포함한 230회의 그룹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나이기에 말할 수 있는 서사: 문학 분야

문학 분야에서도 장애예술인이 활약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청소년 도서 부문 고정욱 작가의 위상은 두드러진다. 2022년 기준 무려 340여 권의 책을 썼고, 300회 이상의 강연을 다녔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으며 1급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온 고 작가는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등 장애아동을 소재로 한 동화를 많이 발표해 문단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작가의 목표 중 하나는 장애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다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이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정용준 작가는 열네 살 소년이 언어 교정원에 다니며 언어적·심리적 장애를 겪는 과정을 담은 자전적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발표했다. 말을 더듬는 인물은 그간 정용준 작가

3



4



5



1 정은혜 작가
2 정은혜 〈니얼굴 은혜씨〉, 2019
3 김현우 〈가이아 수학〉, 2019
4 정용준 작가의 자전적 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5 김원영 변호사와 김초엽 작가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
6 김예리 브레이크 댄서
(사진 출처 김예리 인스타그램)
7 김원영 변호사는 배우로서 연극 무대에
서고 있다.

의 다른 소설에도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 내면의 풍경을 정면으로 들려줌으로써 어린 시절 언어적 결핍에서 비롯된 고통과 고투의 경험을 한층 핍진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현대문학》신인 추천으로 등단한 정 작가는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황순원문학상, 소나기마을문학상,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등 굴지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소설집《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방금 떠나온 세계》와 장편소설《지구 끝의 온실》등으로 국내 SF소설계를 이끌고 있는 김초엽 작가는 열여섯 살에 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며 경험한 장애의 서사를 바탕으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사이보그가 되다》를 출간하기도 했다.《사이보그가 되다》에서 두 사람은 과학기술과 결합한 장애인의 몸을 '사이보그'라는 상징으로 접근해 인간의 몸과 과학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장애와 과학기술을 논할 때 그 중심은 장애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새로운 몸'으로 구현하는 자유: 공연예술 분야

김원영 변호사는 골형성부전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법조계에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동시에 작가로서《희망 대신 욕망》《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등의 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자신의 삶을 토대로 자유와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김원영 변호사는 배우이자 무용수로서 연극 〈무용수-되기〉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인정투쟁; 예술가 편〉 등에 출연하며 장애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환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했던 성장기의 시간을 지나 연극이나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몸을 자아에 통합하고 있으며 장애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참여사회》 2021년 3월호 인터뷰"는 김원영 변호사의 말처럼 장애예술인에게 몸을 탐구하고 움직이는 공연예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용우 무용가는 대한민국 최초 휠체어 댄스스포츠 선수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4년 연속 아시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와 철학을 좋아하는 건장한 스물여섯 살 청년이던 그에게 사고를 통해 찾아온 장애는 비극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는 휠체어라는 '새로운 몸'을 통해 '자유'를 재발견하고 이를 '휠체어무용'으로 표현하게 됐다.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화제가 되는 가운데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 올림픽 브레이킹 부문 동메달, 세계 최대 규모의 브레이킹 국제 대회 '레드불 비씨 원 Red Bull BC One' 2019년 한국 대회 우승, 2020년 '레드불 E-배틀' 월드파이널 4강 진출 등 화려한 성과로 주목받는 국가대표 비걸B-girl이 있다. 바로 김예리 브레이크 댄서다. 후천적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청기를 사용한 그는 불편하기는 해도 청각장애가 꿈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대신 습득력과 박자감이 좋아 춤추기에 유리했다고. 또한 그는 장애가 도리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말한다.

저신장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수 배우는 10년 이상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며 연기는 물론 음향, 극작, 연출 등 연극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와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는 자신의 경험을 연극, 강연, 책을 통해 전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독립출판으로 펴낸 《132cm 사용설명서》는 신강수 배우와 저신장장애에 대한 궁금증, 그의 가족·사랑·친구·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강수 배우는 홀로 1인 극단을 만들어 활발히 연극 활동을 해온 경험을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 장애인예술경진대회 연극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 세상에 울려 퍼지는 기적의 소리: 음악 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음악'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숙명여자대학교 음대에서 수학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피바디 음악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그는 각종 콩쿠르를 석권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음악을 들려줬다. 장애예술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최근 '장애예술인 지원 3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데 힘쓴 그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바퀴 달린 성악가'로 유명한 이남현 교수는 군 제대 후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경이 마비된 중증장애인이다. 폐활량이 사고 전 30%밖에 되지 않아 더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그는 좋아하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긴 시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중증장애인 최초의 성악가로 거듭나게 됐다. 그는 예술경험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논문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각된 가치와 삶의 긍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산문집《나는 지금이 좋다》를 통해 몸에는 장애가 있어도 꿈에는 장애가 없음을 이야기했다.

앞서 소개한 이들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애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과 도전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도리어 신체의 다른 감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장애로 인해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장애예술이 하나의 장르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보인다.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통합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부디 잊힌 꿈을 돌아보는 가을이 되기를 바란다.

글 장보영_객원 기자 | **사진 제공** 이야기장수, 월간미술, 서울문화재단

정은혜, 김현우, 전동민, 고정욱, 정용준, 김초엽
김원영, 김용우, 김예리, 신강수, 김예지, 이남현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November & December Exhibition

11~12월 전시 추천

2022
11.2~11.8

JCC아트센터(종로구 창경궁로35길 29)

김형수 개인전 〈무제〉

김형수 작가는 시간의 무게를 느끼며 하얀 사각 프레임 안에 형태를 그리고 채색을 한다. '무게Weight'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몸과 마음의 무게, 시간의 무게, 아픔의 무게 등을 작가만의 진중한 태도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전시 정보 instagram.com/blueart62



김형수 〈시간의 무게: 능소화〉, 2022

2022
11.2~11.27

삼세영 미술관(종로구 평창44길 2)

이선근 개인전 〈GLORIOUS〉

작가의 내면에는 '시감각Visual Sensation'이라는 메타버스metaverse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계는 눈을 감았을 때 마음의 눈으로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작가의 주된 표현 매체인 평면 위에 이 세계의 주인공인 PIE와 JOY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선보이고자 한다.

전시 정보 instagram.com/yi.sun.geun



이선근 〈Running Late〉, 2022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문화재단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올해도 어김없이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온·오프라인에서 꽃피우고 있다. 장애예술인은 어떻게 이 세계를 감각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정리 연재인_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2022
11.10~12.9

유튜브 및 ZEP 온라인 전시 공간

티스푼 스튜디오 〈SEE: Sight, Easy, Ever〉

'시각장애인은 어떤 시각적 상상을 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다. 안내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장애예술인 임채섭이 만든 곡 'Free Run'과 뮤직비디오, 음악의 세계관이 담긴 3D 프린팅 작품과 이를 설명하는 음성해설을 제작해 마치 직접 만지고 보고 듣는 것 같은 다원예술을 선보인다.

전시 정보 vo.la/rPVRqR

2022
12.13~12.18

학고재 아트센터(종로구 삼청로 48-4)

신동민 개인전 〈위트의 예술: Art of Wit〉

교육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작가의 작품에 자유로운 위트가 녹아 있음에 주목한다. 쉼 없이 달려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신동민 작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번트 작가 중 드물게 30대를 앞둔 성인 작가로서 그동안 연마한 테크닉과 작가만의 개성 넘치는 재능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2
12.25~12.30

제페토 가상전시장

박은영 〈there.. somewhere..〉

현실을 초월해 만들어낸 세계,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라는 의미의 메타버스 내 가상전시장에서 현실의 물질적 작품을 미디어아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다각적 시선에서 과거-현재, 물질-비물질 공간에 놓이는 작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전시 정보 eunyoung-park.com



티스푼 스튜디오 〈Free Run〉 음원 아트



신동민 〈소녀〉, 2022



박은영 〈Untitle_graphic art〉, 2022

김형수, 이선근, 티스푼 스튜디오, 신동민, 박은영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 오픈 포럼 현장

서울예술교육은 [ ] 이다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

—— 우리에게 예술교육은 어떤 의미일까?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중년의 여성에게, 예술가에게, 교사에게 예술교육은 각각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예술교육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를 포스터에 담은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은 지난 2006년부터 펼쳐온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며 시민에게 예술교육의 의미를 묻고, 앞으로의 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질문을 함께 찾는 축제다.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만나는 서울예술교육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와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세 곳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2016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양천구에 문을 연 데 이어 2020년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와 2021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가 개관했는데,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예술교육 거점인 세 곳에서 동시 진행돼 서울 어디서나 가깝게 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었다. 대학로를 시작으로 용산, 서서울로 향하며 서울 곳곳을 지나는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는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의 아카이브 전시 'Since 2006'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교육 워크숍, 강연, 영화 상영, 공연 등 다채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Since 2006'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역사와 예술교육을 경험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학교TA, 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체 등 예술교육 참가자의 경험담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전시 동선을 따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의 2층과 5층으로 올라가면 서울예술교육을 대표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10월 22일에는 1층 스퀘어에서 유아예술교육 '예술로 감각하는 어른과 아이', 2층 아고라에서 창작 워크숍 '빛나는 둘레사이 동동동', 제로라운지에서 유아 양육자 및 유아교육 매개자를 위한 강연 '예술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의 뇌는?'이 펼쳐지며 센터 전체가 예술교육으로 채워졌다.

앞으로의 예술교육을 향한 질문

페스티벌의 시작인 오픈 포럼 '미래를 향한 100개의 질문'은 서울시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앞두고 그동안의 서울 문화예술교육 정책 진단과 변화 과정을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 100개의 질문을 기반으로 서울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참여자와 패널들은 서울형 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키워드, 서울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 탐색,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봤다.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페스티벌의 대미는 예술교육의 지속적 진화와 가치 확산을 위한 탐색의 장인 '질문의 진화'가 장식했다. 첫 번째 오픈 토크는 공교육, 장애, 이주,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생활세계에서 기대하는 예술교육의 가치, 서로가 만나며 빚어지는 마찰과 충돌, 그 속에서 예술교육가와 매개자의 고민과 대응 등 현재를 통해 미래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오픈 토크에서는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연결을 주제로 예술교육이 맞이하는 환경의 변화, 공공 부문의 고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서울과 헬싱키 두 도시의 대화를 시작으로 셜리 헨드릭세(네덜란드 에인트호번 STRP Festival 예술교육 책임자), 미겔 브라셀리(라틴아메리카 라 에스쿠엘라 설립자)와 각각 유럽의 축제, 라틴아메리카의 플랫폼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는데, 서로 다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전망을 발견했다.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질문은 다시 "서울예술교육은 [ ]이다"를 채울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페스티벌 이후에도 이어질 서울예술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삶에서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글 함수령_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팀 | **사진** 서울문화재단

부조리의 경계를 넘어 능동적 협의를 위한 출발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계약 체결은 본래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인의 계약 현실을 살펴보면 외견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필자는 예술인 법률 컨설팅을 하며 예술인이 권리자로서 대가 금액, 저작권, 업무 환경의 개선 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도 되나요?" 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예술인이 역설적으로 부자유를 겪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1 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1 kawf.kr/notice/sub07View.do?selIdx=17948
2 sap.sfac.or.kr/counseling

예술인은 권리와 의무의 능동적 주체

예술 현장에는 대충 쓴 계약서, 무권리자가 추진한 프로젝트, 은밀한 성적 요구, 끝내 얼버무리는 돈 문제, 약속한 바와 달라진 이행 과정 등 수많은 부조리가 존재한다. 예술인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조리를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인은 외부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 활동은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명확하게 이행돼야 한다. 권리자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도, 권리를 포기하게 할 권리도 없다. 설령 관행으로 도피하더라도 권리는 관행에 우선한다.

궁극적으로 예술 환경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면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예술인은 권리와 의무의 능동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얼마나 실현하고 제한할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인에 대한 관점은 관련 법령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수혜적 관점에서 예술인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보거나 분화된 장르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나 예술계 '미투 운

동' 등을 기점으로 예술인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예술인의 삶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법령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9월 25일 시행됐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문화국가원리에 기초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총 여섯 장에 걸쳐 규정, 이에 따라 보호한다.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계약과 협상에 공정성의 저울을 도입해 외견상 합의뿐만 아니라 실체적 합의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예술인조합을 소개한다. 예술인조합은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예술사업자 등)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예술사업자 등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2항). 예술사업자 등은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4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1]에서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변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안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조합이 계약 관련 협의를 하는 방법과 절차 역시 규정돼 있다. 예술인조합은 협의 상대방에게 협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상대방은 검토 결과를 예술인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만일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해야 한다(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부디 예술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공정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절충안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현장의 논의를 법적 관점으로 끌어올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리에 맞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예술인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에서 운영하는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2]의 법률 컨설팅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미리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에 발맞춰 예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서유경_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2 Counseling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예술 창작 활동 과정에서 예술인이 겪는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고 심리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인을 통한 저작권 및 계약,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한 특화된 법률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
상담 받고자 하는 유형의 '상담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게시글 작성 시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 상담 신청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02-758-2180

☞ 법률컨설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 법률컨설팅 Q&A
☞ 실시간 법률컨설팅(대면상담) 일정 현황 보기

2022년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는 연기 장인들

원로배우 티켓 파워


지난 7~8월 공연한 연극 〈햄릿〉에서 이름도 없는 단역배우로 출연한 (왼쪽부터) 박정자, 손숙, 윤석화, 손봉숙

지난 10월 18일 저녁,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연극 〈러브레터〉에서 각각 '멜리사'와 '앤디' 역을 맡은 박정자(80)와 오영수(78)가 마지막 편지 낭독을 끝으로 무대 인사를 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50년 가까이 주고받은 편지 333통을 번갈아 가며 읽는 연극이다.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 관객에게 생동감과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배우의 존재감과 연기력이 중요하다. 박정자와 오영수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극장을 가득 채운 다양한 연령대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971년 극단 자유에서 처음 만나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두 배우의 관록과 연기 내공이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주연부터 조연·단역에, 연출까지 원로배우 활약

이처럼 연기 경력 50년 이상 원로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약상이 눈부시다. "배우에게 정년은 없다. 두 발로 단단히 서 있고,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서는 거다"라고 한 박정자의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좋은 작품이라면 주·조연은 물론 단역도 마다하지 않고 출연한다.

올 하반기만 해도 원로배우의 명품 연기를 직관할 수 있는 무대가 잇따랐다. 지난 7~8월 공연한 연극 〈햄릿〉에서는 박정자를 비롯해 권성덕(81)·전무송(81)·손숙(78)·정동환(73)·김성녀(72)·유인촌(71) 등 내로라하는 '연기 장인들'이 대거 나와 관심을 모았다.

6년 전 같은 연극에서 주연으로 섰던 이들은 새카만 후배들을 받쳐주는 조연·단역으로 물러났지만 존재감이 묵직했다.

데뷔 60주년을 맞은 배우 신구(86)는 올 초 프로이트와 C.S 루이스가 벌이는 치열한 논쟁을 무대에 올린 2인극 〈라스트 세션〉에서 열연한 데 이어 연극 〈두 교황〉(8. 30~10. 30)에서 바티칸 역사상 598년 만에 자진 퇴위를 발표해 세계를 뒤흔든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맡았다. 신구는 "(이 작품에) 욕심이 나서 선뜻 (출연하기로) 동의했는데 막상 (방대한 분량의) 대본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극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햄릿〉을 끝내자마자 신구와 짝을 이뤄 프란치스코 교황 역을 맡은 정동환, 12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 서인석(73)도 베네딕토 16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지난해, 공연 시간이 3시간 넘는 연극 〈리어왕〉에서 주연으로 저력을 보여준 이순재(88)는 지난 9월 개막한 블랙 코미디극 〈아트(ART)〉에서 백일섭(78), 노주현(76)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연기 경력만 66년인 그는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1860~1904)의 〈갈매기〉(12. 21~23. 2. 5) 연출까지 맡았다.





1 주인공 멜리사와 앤디가 나란히 앉아 50년 가까이 주고받은 편지만 번갈아 읽는 연극 〈러브레터〉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한 박정자와 오영수
2 블랙 코미디극 〈아트(ART)〉 무대에 오른 (왼쪽부터) 이순재와 백일섭, 노주현

원로배우 활약상, 연극 향유층 확대에 한몫

연극계는 원로배우의 활약상에 반가운 기색이다. 평생 연극인으로서 소명을 지키며 살아온 대배우가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젊은 연극인에게 귀감과 자극이 되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큰 인기를 누린 오영수가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연극을 해왔으니, 연극에서 다시 나를 찾자'는 생각에 무대로 돌아왔다"며 "끝까지 정진하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로배우의 '티켓 파워'도 대단해 연극 향유층 확대에 한몫하고 있다. 연극 주 관객층인 20~30대뿐 아니라 중장년·노년층 관객까지 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선다. 주로 TV와 영화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친숙한 배우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기 내공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아서다. 실제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10월 19일 기준 올해 국내에서 공연한 연극 1,566편 중 원로배우가 참여한 〈햄릿〉(4위·공연 종료) 〈두 교황〉(16위·공연 중) 〈러브레터〉(18위·공연 중) 〈아트(ART)〉(25위·공연 중)의 티켓 판매 순위는 최상위권으로 분류됐다. 특히 중복 캐스팅 작품에서 원로배우 출연 회차는 조기에 매진되기 일쑤라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그들의 연륜과 식지 않은 열정이 빚어낸 연기를 영상이 아니라 극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감동이 엄청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원로배우는 대사를 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몸짓, 숨소리 하나만으로 극 분위기를 주도하고 어떤 이야기도 밀도 있게 전달하는 연기력이 일품이다. 신구는 말했다. "연극은 일종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이들과 같은 연극인으로 인해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도 잦아져 연극계가 더욱 건강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글 이강은_《세계일보》 기자
사진 제공 파크컴퍼니, 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나인스토리, 신시컴퍼니

※ 문화인의 제목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의 공력을 빚어내는 손내공

국악인 안숙선



—— 이 시대에 안숙선 명창만큼 독보적인 예인이 있을까?
그의 무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를 절대 잊지 못한다.
타고난 성음, 담백하면서도 우아한 연기, 압도적 무대 매너는
판소리를 잘 모르는 관중의 시선마저 단숨에 사로잡는다.
국내외 수많은 무대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쌓아 올린 안숙선 명창이
지난 9월 판소리 〈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인생과 음악 철학, 한국 전통음악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가의 길

Q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리에 입문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집안 어르신들께서 국악을 많이 하셨어요. 국악 집안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예술을 전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뒤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가족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하셨죠. 강백천 선생님, 강도근 선생님이 외당숙이시고요. 강순금 선생님은 이모세요. 어르신들 모두 당대 내로라하는 명인이셨죠. 제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웃음) 이모가 옆에 계시다 보니까 〈남한산성〉이나 〈진도아리랑〉 같은 것을 귀로 듣고 다 배웠거든요. 그러다 공연도 자주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소리에 입문하게 됐어요.

Q 많은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다양한 음악을 배워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셨고,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어릴 적 강도근, 강백천, 주광득 등 여러 선생님께 판소리, 민요, 농악 등 다양한 음악을 배웠어요. 어찌 보면 다 실전 음악이었죠. 당장 합창이나 창극 등 무대에 올라 불러야 하는 음악이 많았어요. 공부가 많이 됐죠. 잘 아시다시피 향사 박귀희 선생님께 가야금, 가야금병창, 민요 등을 배우면서 우리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소희 선생님께 만정제 판소리를 배웠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광수, 성우향, 박봉술, 오정숙 선생님 등께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기에도 저는 스승 복이 많았어요.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은,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아요.(웃음) 오래 쉬다 보면 걱정도 되고 불안해져요. 소리 연습을 해야 후련하기도 하고 걱정이 덜 돼요.

Q 스승의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A 예전 선생님들 모두 늘 '인간됨'을 강조하셨어요. 사제지간, 친구지간 등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 또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정갈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인이 평소 갖춰야 할 덕목, 차림새나 인간성 같은 거죠. 또 예인이 무대 위에서 지켜야 할 여러 덕목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소리를 하다가 뭔가 실수를 하고 그냥 재담을 하며 어물쩍 넘어간 적이 있어요. 당시 김소희 선생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편지를 적어 훗날 저에게 주셨어요. 편지 안에는 '모두가 좋다고 해도 단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그 공연은 아닌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보면서 어찌나 얼굴이 달아올랐는지 몰라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합니다.



남다른 음악 철학

Q 한국 전통음악 중에는 다양한 갈래의 성악이 있습니다. 그중 판소리는 다른 성악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판소리만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요?

A 판소리는 분명히 음악 장르지만 동시에 문학 장르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면 문학적 가치가 상당해요. 또 혼자 하는 일인극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악 반주도 없이 오로지 북 반주 하나에 맞춰 연기와 감정을 표현해 내는 거죠. 판소리에는 우리 삶과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창자와 청자가 서로를 함께 느낀다, 음악에 그보다 더한 매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음악에는 추임새라는 것이 있는데요. '좋다~' '얼씨구~' 하는 것이 관객이 창자와 함께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Q 판소리 소리꾼에게 좋은 목, 좋은 소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다른 성악에서의 좋은 목, 좋은 소리와 다른가요?

A 좋은 목이나 좋은 소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소리 목은 관리하며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을 가졌어도 소리꾼은 늘 목을 풀어야 해요. 하루만 풀지 않아도 생목(판소리에서 소리에 공력이 부족해 트이지 않은 상태의 성음)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늘 풀어두고 관리해야만 좋은 목을 유지할 수가 있죠.

Q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판소리 완창 무대를 선보이셨습니다. 판소리 다섯 마당 완창 무대에 매해 꾸준히 오르던 시기도 있었고요. 판소리를 완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리꾼에게 완창은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한 것은 판소리 목은 관리하며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을 가졌어도
소리꾼은 늘 목을 풀어야 해요.



A 완창이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무대라고 생각해요. 완창하기 위해 정말 오랜 기간 배우고 연습해야 하거든요. 중간중간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무대지만 마치고 나면 참 뿌듯하죠. 물론 한편으로는 항상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명하고.

Q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시고 체력을 관리하시나요?

완창이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무대라고 생각해요.

A 그냥 목을 아끼는 데 최선을 다해요. 늘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찬물은 안 먹어요. 몇 년 전까지는 집에서나 차에서나 에어컨도 안 틀었어요. 가족이나 같이 다니는 분들이 고생하셨죠. 목에 수건을 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도 중요하고요. 젊을 때는 늘 걸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저는 공연 전에도 대기 시간에는 공연장 앞을 자주 걸어요. 또 평소에는 산에도 많이 가고요. 산에 가면 소리를 흥얼거리며 걷게 되니까 일석이조랄까요? 참 좋았어요.

전방위적 음악 활동

Q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자체가 국악계의 중요한 역사라는 생각도 들고요.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셨고, 여러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시며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장 겸 예술감독 이력도 가지고 계시죠. 여러모로 국립창극단과의 인연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아무래도 창극단에서 젊은 시절 많은 작품을 하고 배우면서 성장했어요. 판소리는 원래 일인극이거든요. 내가 춘향이도 되고, 이몽룡도 되고, 변사또도 되고, 방자도 되고, 월매도 되는 거죠. 창극은 판소리가 기본이 되지만 연기, 음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우리 음악 종합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 관객이 즐기기에 아무래도 판소리보다 창극이 더 쉽고 재미있죠. 뮤지컬이나 오페라만큼 예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모자람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작품은, 글쎄요? 생각해 보면 작품 하나하나 모두 기억에 남아요. 예전 허규 선생님 작품들도 기억에 남고요. 최근 작창했던 〈트로이의 여인들〉은 무대 밖에서 보니 더 남다르더군요. 요즘에는 출연보다 창극 관람을 많이 하는데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해외 무대에도 무수히 오르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

인가요?

A 2002년과 2003년에 파리가을축제, 영국 에든버러에서 〈춘향가〉 완창을 했는데 그때가 기억에 남아요. 특히 관객의 호응이 기억에 남아요. 〈춘향가〉를 완창하려면 정말 길거든요. 솔직히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말도 모르는 외국 관객이 5~6시간 우리 소리를 끝까지 듣기나 할까? 감동을 받을까?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무대에서 노래하면 관객 표정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슬픈 대목에서는 훌쩍거리고 웃긴 대목에서는 히죽히죽 웃더라고요. '아, 이거 음악으로 통하는 거구나.' 결국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몇십 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내고 몇 차례나 다시 무대에 나가 인사를 하고 나서야 공연이 끝났어요.

Q 다국적 재즈 그룹 레드선Red Sun·정명훈·정명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전통음악과 다른 장르가 만날 때의 어려운 점 혹은 즐거운 점은 무엇인가요?

A 네. 협연도 많이 했죠. 김덕수 선생님과 레드선, 정명훈 선생님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했고, 최근에 정명화 선생님의 첼로 연주와 함께 〈사랑가〉와 〈흥보가〉를 협연했습니다. 김덕수 선생과는 아주 어릴 때부터 누님, 동생 하면서 알고 지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 음악도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내던 중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디 연습실 같은 데서 외국 재즈 밴드 분들과 만난다고 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각자 자기 악기 연주하고 저는 소리하고 그랬어요. 악기 소리를 들어보니 저는 휘모리가 좋겠다 싶어서 〈수궁가〉 중 '좌우나졸~' 시작하는 대목을 불렀죠. 그랬더니 즉흥으로 막 거기에 음악을 붙이는 거예요. 대단하대요. 물론 최종 작품은 많이 손봤는데 처음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협연은 늘 어려워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결국 음악으로 통하더라고요. 워낙 본인 장르에 대가이신 분들과 협연하기도 했고, 그래서 상대 음악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있었어요. 타장르와 협연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결국 주목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노력해 우리 음악이 대중 안으로 제법 스며들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협연을 하면 그만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결국 우리 음악을 더 알릴 수 있어서 좋아요.

예능보유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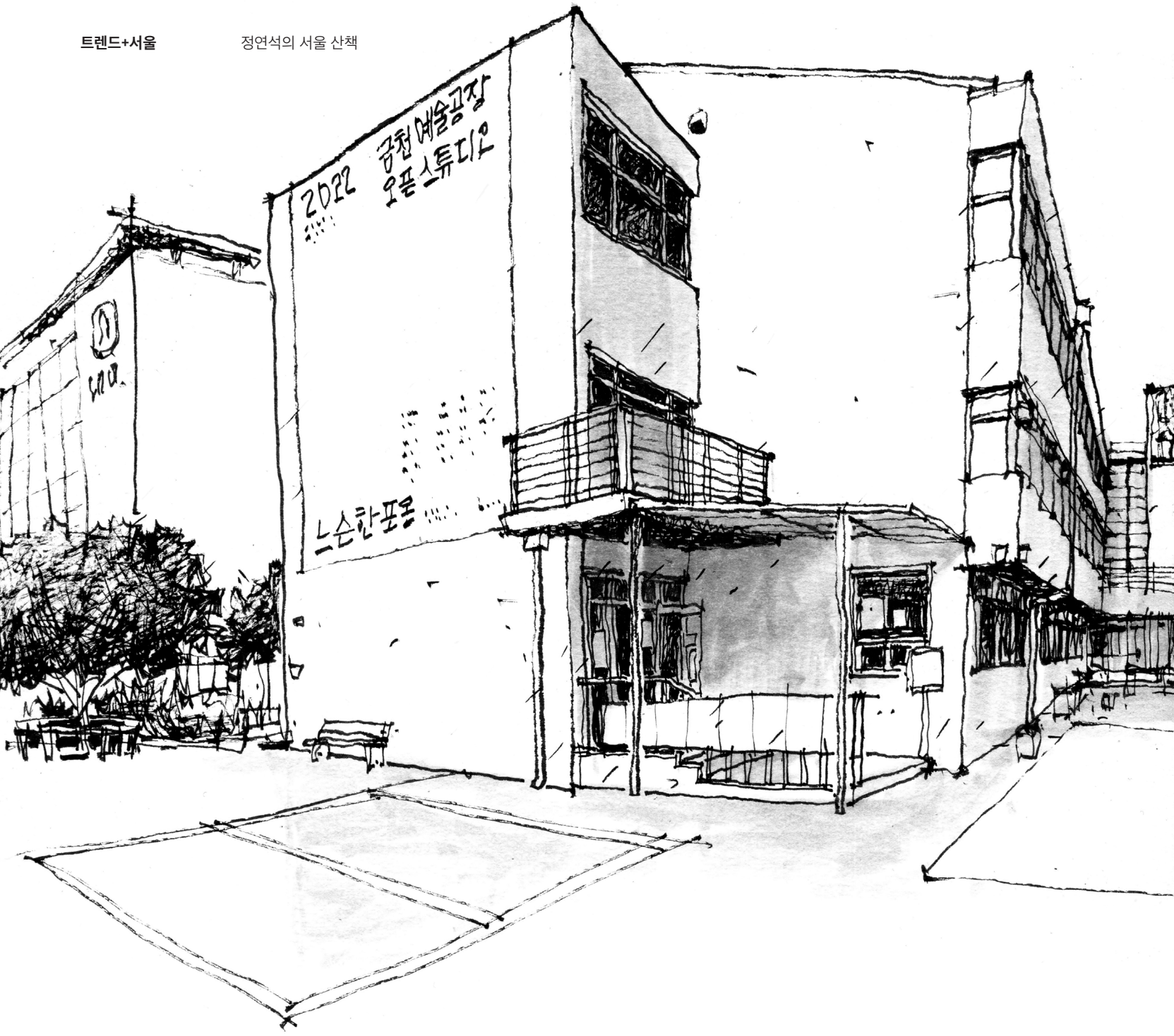
Q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신 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예능보유자 지정이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너무 감사하죠. 특히 우리 음악하시는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그분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거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전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것을 후배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힘닿는 데까지 우리 소리를 올곧게 전할 생각입니다.

Q 한국 전통음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한글을 쓰고 또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 국을 먹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니까 그런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그러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묻지 않죠. 우리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화잖아요. 당연히 알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많은 분께는 낯선 음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둑 두는 법을 알아야 바둑대회 방송을 봐도 재미가 있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음악도 간단하게라도 배우고 해봐야 해요. 그래야 들을 때 재미가 있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꾸 접하고 한 가락이라도 배워두면 우리 음악을 듣고 볼 때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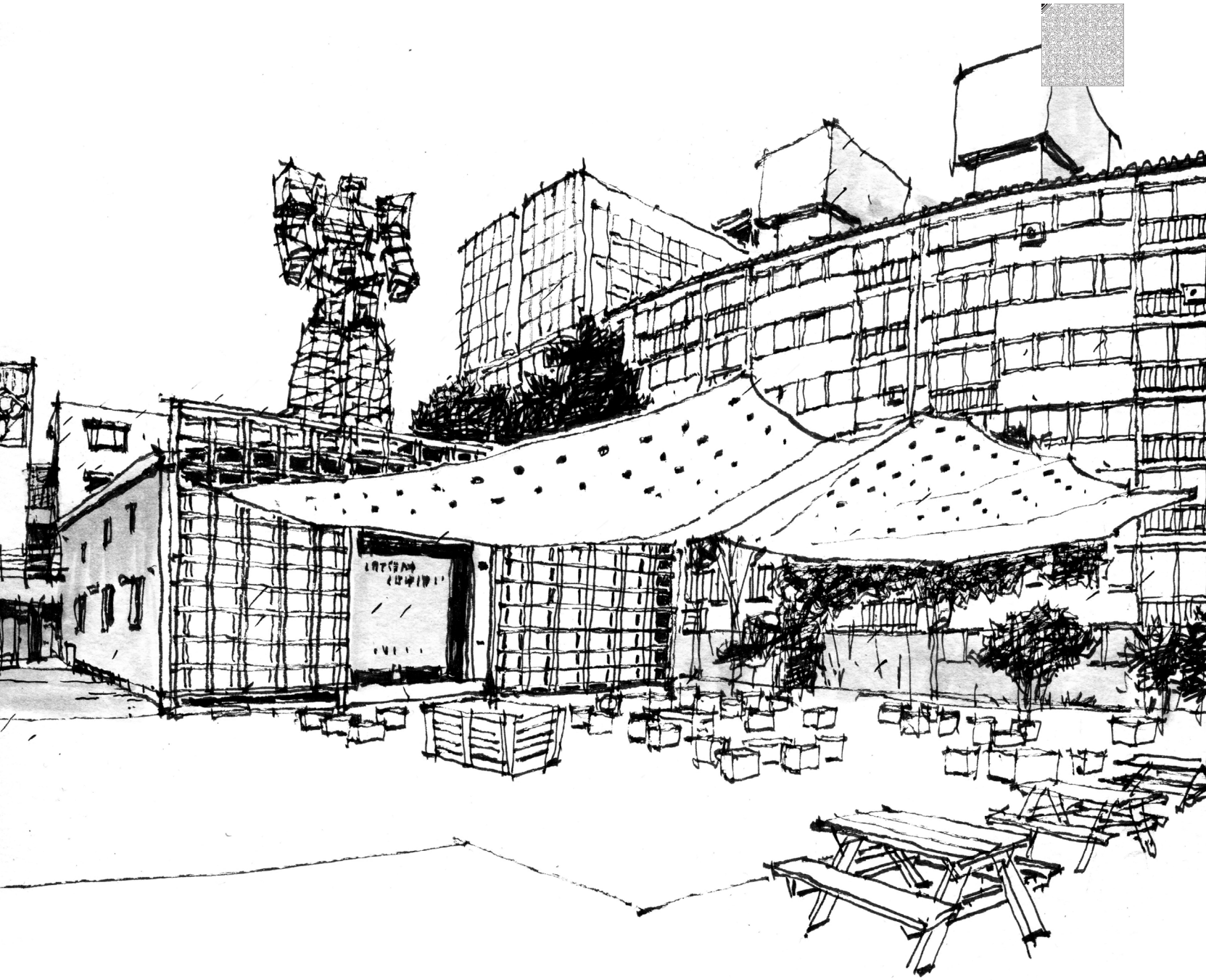
글 성혜인_음악 평론가. 음악비평동인 《헤테로포니》 필진. 비평지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진 제공** 안숙선



생활의 골목을 찾아 떠나는 산책

독산동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기어이 비를 뿌리는 날이다. 마치 초겨울처럼 쌀쌀해진 기온이 여름의 끝자락을 본 지 며칠 만에 다시 겨울을 떠올리게 한다. 독산역 1번 출구로 나와 내리는 비를 우산으로 겨우 가려가며 금천예술공장으로 향한다. 2022년 금천예술공장의 13기 입주작가 16인의 작업실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보기 위해서다.



금천예술공장, 독산동의 새로운 활력

1975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된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해 2009년 문을 연 금천예술공장은 매해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를 선발하며 1년간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의 정문으로 들어서니 오른쪽 창고동의 지붕에 파이프로 만든 거대한 로봇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올해 오픈스튜디오 행사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느슨한 포옹'이라는 주제로 '예술가의 방'을 오픈하는 것과 동시에 '실험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층으로 들어서니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스튜디오를 방문해 예술가의 작업에 관심을 보

이고 있었다. 오픈스튜디오 기간만큼은 각각의 작업실이 작가의 개인전보다도 풍성한 이야기를 전한다. 예술가의 작업은 결과물로 대중과 만나지만 그 결과물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의 작업 과정이 드러나는 작업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전시장이기도 하다. 3층의 전시장인 PS333에서 진행되는 '아티스트 토크'도 흥미로웠다. 이날은 '모험인가, 보험인가: 미술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이라는 주제로 3명의 작가와 관객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 작업장인 창고동에서 입주작가 16인의 소개 영상을 흥미롭게 관람했는데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작가를 직접 만난 것처럼 느껴졌다.

금천예술공장의 오픈스튜디오를 관람하고 나올 때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독산동의 공기에는 예전 구로공단이었을 때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수출산업을 책임지던 구로공단의 역사가 지나간 페이지로 넘어간 독산동에 금천예술공장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첫 장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까운 가산동과 구로동이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라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첨단의 이름을 얻었을 때도 독산동은 여전히 독산동 준공업지역이다.

독산동의 인상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워 보였다. 오래된 작은 공장과 사무실, 아파트와 빌라, 요즘 지은 것처럼 보이는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이 경계 없이 모여 있다. 오래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뒤섞여 있고, 낡은 집과 새집이 마주 보고 있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일요일, 독산동의 공장은 정문을 걸어 잠그고 짧은 휴식에 들어갔다. 길가에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끝끝내 변하지 않는 삶의 의지가 가득한 동네

문래동과 성수동의 준공업지역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힙한' 장소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에도 독산동의 준공업지역은 구로공단의 마지막 지문처럼 남아 있다. 여전히 독산동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어린 여공이 '공순이'라는 멸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세월이 변하면 거리도 변하기 마련이다. 2022년 가을의 독산동 골목에서는 그 시절의 '공순이'를 더는 찾을 수 없고, 어린 누나가 가족의 생계와 동생의 학비를 책임질 일도 없다. 가끔 편한 복장의 동네 주민과 말끔하게 차려입은 방문객이 지나갈 뿐이다.

조금씩 잦아드는 10월의 가을비 아래 우산을 받쳐 들고 독산동 거리를 지나 금천뮤지컬센터로 향했다. 금천뮤지컬센터는 2021년 11월에 개관했다. 공연장, 연습실, 강의실, 창작공간 등이 갖춰진 전국 최초의 뮤지컬 특화 공간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작 뮤지컬 제작과 공연에 힘쓰고 있다. 가산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생긴 빈 교실의 일부를 재단장해 개관했다. 삭막할 듯한 독산동의 준공업지역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독산동의 일부 지역은 재개발돼 제법 도시계획적 면모를 갖추고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조성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산동은 특별한 것 없는 삶의 골목으로 채워져 있다. 성수동이나 문래동처럼 감성을 자극하는 예쁜 길도, 눈길을 끄는 독특한 느낌의 가게도 별로 없지만 그 대신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생활의 시간이 가득하다. 그것은 세상의 밑바탕을 이루는 치열한 생산의 본거지이자 험한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생활의 골목이다. 이 골목 속에는 변해 버린 세상과 삶의 방식 속에서도 끝끝내 변하지 않는 삶의 의지가 가득하다.

골목을 나와 독산역 쪽으로 향하다가 재미있는 곳을 발견했다. 'ART GALLERY·ART STUDIO·ART MOMENT'라는 큰 글자 아래 '예술의 시간'이라는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영일프레시젼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다. 원래 공장의 기숙사였던 곳을 고쳐 갤러리와 분위기 있는 카페로 만들었다고 한다. 독산동이 점점 흥미로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갤러리에서는 실연을 소재로 한 박혜수 작가의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3층의 카페에서 한창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꼭 한번 들러봐야겠다. 독산동 산책을 마치고 독산역으로 가는 길. 지하철역 앞길의 이름이 '벚꽃길'이다. 매해 봄이면 이곳에 피는 벚꽃이 멋지다고 들었다. 독산동을 다시 방문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글·그림 정연석_《서울을 걷다》 저자

동물을 생각하는 날, 어떤 책 읽을까?

책《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와《개는 천재다》

10월은 동물을 깊이 생각하는 달이다. 10월 2일은 농장동물이 겪는 고통을 알리고 농장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농장동물의 날'이고, 10월 4일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세계 동물의 날'이다. 동물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10월을 무심히 보냈더라도, 이번 달에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1,500만 반려인, 반려동물 시대에 사는 지금, 어릴 적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에 답을 달았던 마음으로.



분홍돌고래와 함께 탐험하는 아마존 이야기

《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 사이 몽고메리 지음 | 돌고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배우 박은빈 이상으로 뛰어난 주연이 있었다. 바로 '남방큰돌고래'. 현재 제주 해역에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다. 하지만 마구 버려진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무분별한 선박 관광으로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2017년부터 4년간 남방큰돌고래 31마리를 비롯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은 국내 연안에서만 4천 마리가 넘게 폐사했다. 우리는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를 매우 친숙하게 여기지만 돌고래의 생존 여부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는 정글에서 몇 달씩 체류하며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열혈 동물학자이자 자연 칼럼니스트인 사이 몽고메리가 쓴 '분홍돌고래'의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고래는 잿빛을 띠고 살아가지만 아마존강 돌고래 '보투boto'는 분홍빛 몸으로 살아간다. 사이 몽고메리는 어릴 때부터 아마존의 광활한 생태계에 매료됐다. 성인이 된 후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을 탐사하다가 처음 민물 돌고래를 목격한 일을 계기로 분홍돌고래에 매료된다. 생태 에세이이자 여행 회고록으로 읽을 수 있는《아마존 분홍돌고래를 만나다》는 아마존 탐험기를 중심으로 진화생물학, 생태학, 인류학, 신화를 넘나들며 아마존의 과학과 마법을 헤아린다.

저자가 아마존을 탐험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분홍돌고래를 만나기 위한 여정 속에서 저자는 아마존에서 자행된 난개발의 실태를 확인하고 환경파괴, 자원 유출, 전염병 유입의 흔적을 목격한다. 그는 분홍돌고래를 만난 기쁨과 함께 외지인이 동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닫는다. 인간이 동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이 동물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동물의 생존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 그리고 사이 몽고메리의 전작《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을 읽은 독자라면 이 책에도 빠져들 것이다.

개는 자기 자신보다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는 지구상 유일한 존재

《개는 천재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지음 | 디플롯

지난해 국내에 출간돼 큰 화제를 모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쓴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의 대표작이다. 대학에서 진화인류학을 공부한 두 저자는 《개는 천재다》에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주요 논거인 개의 인지능력과 생존능력을 다룬다. 모든 개는 개만의 고유한 지능을 갖고 있고, 개는 자기 자신보다 인간(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책의 핵심. 개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개의 본성에 대한 호기심을 낱낱이 소개한다.

브라이언 헤어는 "개는 천재다"라는 파격적 문장이 사실인 이유에 관해 "과학자가 동물의 인지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동물이 최대한 많은 장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했는가이다"라고 밝힌다. 이 주장이 팩트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폭발물을 찾는 군견, 경비를 서는 경찰견, 불법 수입물을 탐지하는 세관견, 위기에 처한 동물의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동물의 똥을 찾아내는 자연보호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는 인간의 지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다.

왜 이 같은 일은 개만 가능할까? 저자는 실험을 통해 늑대와 개의 협력 행동을 비교한다. 영역 보호, 연합 형성 등은 두 동물의 차이가 없었으나 핵심은 '인간과의 협력'이었다. 늑대는 사람이 키워도 인간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반면, 사람이 키운 개는 인간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한다. 사냥 역시 늑대는 큰 집단이 함께 행동해서 가장 큰 포유동물도 쓰러뜨리지만, 개는 인간이 사냥을 주도하는 동안 큰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개에 관한 통념, 그 너머의 흥미로운 연구를 친절하게 소개한다. 책을 읽고 나면 우리 곁의 개를 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된다.



글 엄지혜_《채널예스》 기자 | **사진 제공** 돌고래, 디플롯

예술의 확장, 기술 그리고 융합

전시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작은 방주〉와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대학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며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도 의학과 공학 등 장르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 융합을 도입했다. 그야말로 '대세' 임이 분명한데 예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융합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무용, 연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기술과 융합하는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이 발현되는 이 시점에, 시각예술 분야에서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전시 둘을 소개한다.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키네틱 아트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작은 방주〉 |
2022.9.9~2023.2.26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의 '현대차 시리즈'는 2014년부터 매해 국내 작가 한 명(팀)을 지원하는 연례전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서울관 개관전에서 선보인 작품 '오페르투스 루눌라 움브라Opertus Lunula Umbra' 이후 10년 만에 최우람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은 더 견고하고 웅장해졌으며 철학과 사회적 메시지까지 들어 있다.

강렬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빨강', 마치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 저절로 긴장하게 되는 '무한 공간', 천장으로 고개를 돌려야 발견할 수 있는 '검은 새'와 '천사' 등 시각적 재미는 물론이고 작품은 팬데믹, 환경 문제 등을 주제로 관객에게 현시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 소재로 만든 꽃 '하나', 피자 박스로 만든 '작은 방주', 배의 몸체, 폐기된 자동차의 전조등과 후미등으로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URC' 등 소재에 대한 해석과 관찰이 돋보이는 작품도 흥미를 더한다.

최우람 작가는 국내 '키네틱 아트Kinetic Art[1]' 대표 작가로 30년이 넘도록 움직이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기계를 다루는 만큼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과 오류를 수없이 마주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진보한 만큼 작가의 작품도 발전했다. 청계천 기계상가 사장님들이 스승이라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작업이 가능했다는 작가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융합예술이란 결국 각기 다른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23년 2월 26일까지 열리는 해당 전시의 일부 작품은 움직이는 시간이 지정돼 있기에 관람 전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1


2

데이터·비인간·가상 공간으로 보는 융합예술의 현주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 11.7~11.19 |
성수동 에스팩토리 A관

10년 넘게 기술 기반의 예술 창작을 지원해 온 서울문화재단 '다빈치 크리에이티브'가 3년 전 '언폴드엑스UnfoldX'로 확장·개편됐다. 올해는 특히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대표 축제 브랜드인 '아트페스티벌_서울'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17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창제작 지원 선정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작가,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초청한 작가의 신작을 선보인다. 스위스 전자예술 박물관HEK, House of Electronic Arts, 독일 예술과 매체기술 센터ZKM, 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가 추천한 해외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덴마크 기업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과의 협력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총 3개 주제로 나뉜다. '데이터 판타지'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알고리즘, 데이터 사이언스 등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험적 예술을 소개한다. 데이터 공간 체험과 더불어 데이터 생태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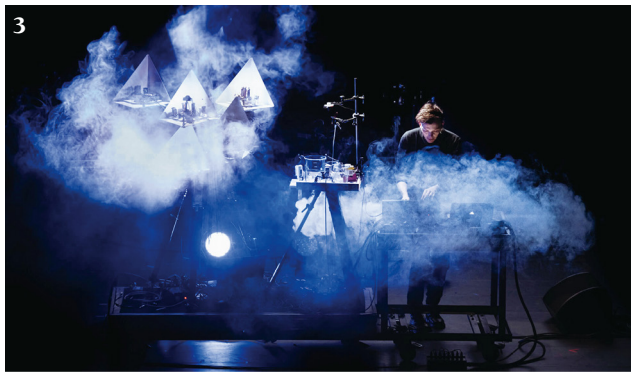
'불확실한 종'은 창작자로서 인간 외의 비인간형 예술가와 창작물을 탐구한다. 온/오프라인의 생태 환경과 디지털 환경과 기술 환경의 진화 혹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다른 존재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진화하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예술과 디지털 생태 및 새로운 종들 사이의 미래 상호연계성을 예측해 본다.

인간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공간을 탈피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몰입적 경험을 하면서 더 예민하고 다양하게 반응하게 됐다. '메타-스케이프'는 가상공간 안의 몰입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작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물리적 신체와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상호관계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말한다.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을 조립한다. 따라서 대체로 조각의 형태를 취한다.

모리츠 사이먼 가이스트Moritz Simon Geist, 다이토 마나베Daito Manabe, 조영주, 노진아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새로운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올해의 신작, ZKM과 HEK의 큐레이터 및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 등을 통해 융합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자.

전시는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 에스팩토리 A관에서 열린다. 11월 7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닝에서 작가의 퍼포먼스와 개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누리집UnfoldX.org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예약을 할 수 있다.


3


4

1 최우람 〈검은 새〉
2 최우람 〈작은 방주〉
3 Moritz Simon Geist 〈Tripods One〉
4 AATB 〈Handshake〉

글 김아름_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팀 |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11월,
가을이
작별 인사를
남긴 골목길에는
마른 나뭇잎들이
서럽게 피워낸
지난 봄꽃이여,

천둥번개 가슴 졸인
여름날들 되뇌며
긴긴밤 동안
힘겹게 잡은
이국겔지



을지로 공구상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모여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며 명맥을 유지했으나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으로 영세 세입자 내몰림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 서울 찰나의 본문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리얼리티 연애 예능 열풍!

〈환승연애2〉와 〈나는 SOLO〉

'최커현해', 즉 '최종 커플은 현규-해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팬의 리뷰 머리말은 대개가 이렇게 시작한다. 티빙 〈환승연애2〉가 방영 한 회차를 남기고(10월 15일 기준) 있기에 이 둘의 투샷을 더는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둘이 최종 커플 성사되고 헤어진 후 시즌3에 다시 나오자"라는 글을 쓴 팬도 있다. 티빙에서 시즌2를 방영 중인 〈환승연애〉는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송 기획 내용만 설명해도 의구심을 표할 만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미 헤어진 구남친과 구여친이 네 커플 정도 출연한다. ('메기'라는 이름으로 방영 중간에 새로운 출연자가 투입되기도 하기에 정확한 커플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누가 서로의 엑스(구) 연인인지는 출연자끼리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구남친-구여친이랑 방송에 같이 나온다고? 아니, 왜?"

8명의 출연자는 누가 서로의 엑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남녀 출연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저녁에 "○○님은 ○○님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주고받는다. 문자를 통해 다음 날 함께 데이트를 나가기도 하고, 한집에서 합숙하면서 미묘한 감정 줄다리기를 이어나간다. 이 방송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고 뒤늦게 '환연열차'에 올라탄 시청자의 초반 반응은 대부분이 이렇다. "구남친-구여친이랑 방송에 같이 나온다고? 아니, 왜?" 그러니까 그 이해가 잘 안되는 각자의 연애사가 새로운 연애 매칭에 깊이 결부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개성이자 다른 예능과의 차별점이다. 연애 매칭 프로그램 대부분이 시청자에게 잊고 있었던 설렘과 두근거림을 선사한다면, 〈환승연애〉는 내 '과거 연애'의 지질함과 해소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까지 환기한다. 헤어지고 감정이 완전히 해결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자신하던 사람조차 과거의 연인이 새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눈앞에서 실시간 확인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출연자 대부분이 헤어진 후 이 방송을 통해 오랜만에 조우하고 자신이 과거의 연애에 아직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인하기도 한다. 상대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출연자조차 구남친-구여친이 새로운 이성과 데이트 나가고 '썸'을 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 공간에서 지켜보며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현규-해은 커플의 지지자가 다른 커플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은 여성 출연자 성해은의 과거 연인에 대한 순애보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현규는 새로 투입된 남자 출연자이고 이미 방송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했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의 팬층이 새 출연자에게 적대적인 것과 달리 〈환승연애〉는 짝짓기 화살표가 지지부진할 때마다 새 출연자가 등장해 합숙소에 새바람을 불고 온다. 현규는 첫 등장과 동시에 '해은 누나'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면서 여성 시청자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8년이나 사귄 엑스 남자 친구에 대한 미련이 커서 매일 울며 잠들던 해은에게 잘생긴 연하남의 구애라니! 팝콘 먹으며 "해은아, 구남친은 잊고 이제 새 사랑 찾아가자!"라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커플이 궁금하신 분은 박막례 할머니의 유튜브 중 '환승연애 리뷰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3040의 이유 있는 처절한 연애 사투

〈환승연애〉가 20대의 연애를 그린다면, 그보다 연령대가 좀 높은 3040의 '이유 있는 처절한 연애 사투'를 그린 연애 매칭 프로그램은 ENA PLAY·SBS Plus의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다. 과거 종영한 SBS 〈짝〉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이 방송은 화제리에 10기 출연자의 꼬이고 꼬인 애정 전선의 양상을 방영하고 있다. 이 방송 출연자는 출연과 동시에 주어진 예명을 사용한다. 영철, 영식, 정숙, 영숙, 순자 등의 예명을 1기부터 10기까지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1기 영식과 10기 영식이 따로 존재하는 식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거나 호감을 느끼고 여러 번 데이트를 반복하면서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나는 솔로〉에 있지만 이 방송의 원동력은 출연자가 의외의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있다. 5회까지 커플 완성처럼 보였던 영철-영자가 갑자기 깨지고 영철이 영숙과 커플이 되고 여기에 갑자기 영호가 끼어드는 식이다. 정숙-영철이 스킨십이 포함된 데이트를 잘 하고 와서 술자리에서 갑자기 싸우기도 한다. 선택의 시간에서 이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다른 이성을 선택한다. 어떤 이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직선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 어떤 이는 '호감 가는 것은 ○○이지만, 혼자 자장면 먹기 싫으니 ○○를 선택'하기도 한다. 기수마다 빌런이 있기도 한데 시청자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출연자를 여과 없이 방송(혹은 악마의 편집)한 제작진에게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연애 예능이란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반려견이 내 운명의 짝을 골라준다는 신기한 기획의 SBS 〈펫미픽미〉, 단순히 연애가 아닌 무조건 결혼을 목적으로 100일 안에 결혼 상대자를 찾는 JTBC 〈결혼에 진심〉, 유재석과 〈런닝맨〉 정철민 PD가 참여한다고 발표한 tvN 〈스킵〉도 모두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이 높으니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영하는 것은 방송계에서 놀라울 일이 아니지만 신기한 것은 거기에 응하는 일반인 출연자가 화수분처럼 마르지도 않고 계속 등장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저런 '예능캐'를 찾아왔는지 놀랍기만 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드라마 보듯 관람하게 만드는 퀸카-킹카 고스펙 출연자도 있다. 이러한 연애 매칭 프로그램은 초반에는 모두 '진짜 운명의 상대'를 찾아 나오지만 결국은 몇 표를 받는지가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들은 '절대 혼자 남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계산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시청자 역시 그러한 선택을 '리얼리티'로 바라본다. 대본으로 쓴다 해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커플 탄생과 출연자의 폭발하는 감정의 파란이 TV 속에서 요동친다.

글 김송희_《빅이슈코리아》 편집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저자, 칼럼니스트 | **사진** 티빙, ENA

지옥에서 보낸 한철

임상수 감독의 〈파로호〉

※칼럼의 제목은 랭보의 동명 시에서 인용했습니다.



〈파로호〉(2022)

감독 임상수
출연 이중옥(도우), 김대건(호승),
김연교(미리), 변중희(이순),
강말금(혜수)

인생이 내 두 손을 꽁꽁 묶고서 내 앞에 물잔을 들고 서 있다. 안절부절못하는 나에게 인생은 언제나처럼 친절하지 않다. 곧 나를 향해 끼얹어 버릴 것 같은 그 물 한 잔이 얼음처럼 차가울지, 화상을 입힐 만큼 뜨거울지 알려주지 않는다. 한순간도 대충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은 나를 심판하러 온 악마처럼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위협한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만다.

삶이라는 지옥

도우(이중옥)는 시골 모텔에 갇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라고 칭찬받지만 어느 날 노모가 실종되자 사람들은 그를 의심한다. 단골 미용실의 원장(강말금)만 그의 편을 들어준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남자 호승(김대건)이 나타나 이상하게 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김연교)은 갑자기 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임상수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 〈처녀들의 저녁식사〉로 제51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최대 섹션인 하버(Harbour) 부문에 공식 초청받았고, 국내 개봉 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진출하면서 호평받았다. 영화 〈파로호〉는 지옥에서 한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주인공 도우를 통해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의 불친절함을 고개 돌리지 않고 바닥까지 들여다본다.

임상수 감독은 인생이 발을 걸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도우의 인생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는데 도우의 고통은 한계에 다다른다. 도우의 삶처럼 영화의 이야기가 뒤틀리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꼬인다. 똬리 틀고 얌전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독이 든 이빨을 드러내는 독사처럼, 사람들은 평범한 표정 뒤에 잔인함을 동그랗게 숨겨두고 있다.

도우가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허허벌판 위의 모텔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뜨내기손님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낡은 호텔은 사람의 온기가 없어 차갑다. 균열이 생기고 고쳐도 다시 물이 새는 낡은 천장과 파이프는 달아날 수도 없고 수선할 수도 없는 도우의 인생을 상징한다.

외로움이라는 지옥

강원도 화천의 실제 호수인 '파로호'는 1944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댐으로 인해 생긴 대한민국 최북단의 인공 호수다. 영화 〈파로호〉는 군사 접경지역이라는 실제 장소가 품고 있는 서늘한 폭력성 속에 현재의 삶을 사는 인물의 달아날 수 없는 삶을 가공해 넣는다. 희망이라 불리는 자기기만에 빠질 시간도 없이 절망적이고 외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 도우를 통해 영화는 삶과 미약한 희망 그 자체를 조롱한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밝힐 수는 없지만 도우와 호승 사이의 비밀은 관객에게 현재 우리의 시간이 담고 있는 공포를 재현한다. 외로움이라는 지옥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반전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곱씹을수록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

임상수 감독은 욕심을 내 힘을 주는 대신 찬찬히 인물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그는 플롯을 교란시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지만 반전과 극적 스릴을 위해 이야기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선인과 악인의 경계가 무너져 있기에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교감할 수 있는 영화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저열한 삶이 바로 당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말하며 악의를 체험하게 만든다.

영화 〈파로호〉는 지옥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묻는다. 과연 삶이 나를 짓누르고 달아날 수도 없게 발목을 붙잡고 잔인하게 괴롭힐 때, 누군가를 밟고 서지 않으면 하염없이 가라앉는 진창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질문 앞에 선 사람이 누구든지 묵직한 이 질문에서 가볍고 경쾌하게 달아날 수는 없을 것이다.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빴다》 등이 있다.

현재의 젊은 국악인이 들려주는 과거의 명창·명인 이야기

2022 〈돈화문 나들이〉

〈돈화문 나들이〉[1]는 2018년 가을에 처음 시작됐다. 국악로 주변을 돌아보면 근현대 국악의 면모를 소상히 알게 된다. 국악로에서도 특별히 몇 개의 지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왕직 아악부(운니동 98번지), 조선성악연구회(익선동 159번지), 명월관(돈의동 145번지), 운당여관(운니동 79의 1번지), 오진암(익선동 34의 6번지), 새동산다방(묘동 150번지), 대각사(봉익동 3번지) 등이다. 국악로에서 조금은 벗어났으나 조선음악무용연구회(경운동 47번지), 한국정악원(훈정동 97번지)도 한국 근현대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다.

〈돈화문 나들이〉를 통해 둘러보는 옛 국악인의 자취

오진암梧珍庵은 서울특별시 음식점 1호 업소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요정料亭이다. 1972년 5월 30일, 오진암에서 밤 공연을 위해 박범훈, 최경만, 김영재 등이 출근했다. 그런데 오진암 주변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다. 연주단은 당시 인간문화재 황혜성의 궁중음식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서약서를 썼다. 여기서 본 것을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조였다.

그날 밤, 남측의 이후락(중앙정보부장)과 북측의 박성철(제2부수상)이 7·4남북공동성명의 사전 준비를 위해 만났다. "술에 독약을 타지 않았으니 마음껏 마십시다." 당시 이후락이 건넨 농담은 지금도 국악인 사이에서 전설로 통한다. 국악인이 설 무대가 많지 않았던 시절 오진암은 한국의집, 워커힐 가야금식당 등과 함께 국악인의 좋은 일자리 구실을 했다.

몇 해간 〈돈화문 나들이〉의 투어 대상에서 조선성악연구회가 제외됐다. 골목 안에 위치해 있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조선성악연구회의 커다란 한옥 건물은 현재 두 개의 식당과 일반 가정집으로 분리됐다. 한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아쉬우나 1930년대 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개보수를 통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돈화문 나들이〉를 통해서 후대에게 매우 재미있게 알려진 장소는 새동산다방이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새동산다방은 국악인의 집결지였고 인력시장이었다. 국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섭외가 새동산다방에



국악인 주보라

서 이뤄졌다. 방송국이나 유명 요릿집에서도 특정 국악인과 소통하거나 국악인을 섭외하기 위해 새동산다방에 연락을 취했다. 그곳에 국악인은 늘 진을 치고 있었다.

1979년 5월 31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상경한 후 주로 국악로 주변에서 살았던 인간문화재 박녹주 명창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화장을 원해 한 줌의 재가 돼 안치된 곳이 바로 대각사다. 대각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장소다. 또 범패를 비롯한 불교음악의 전승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공간이다.

주보라, 유태평양과 함께한 〈돈화문 나들이〉

6.25전쟁 이후 국악로에는 명창·명인의 국악 학원이 참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청구고전성악학원青邱古典聲樂學院이다. 훗날 선소리산타령의 인간문화재가 된 이창배1916~1983는 여기서 경서도창京西道唱의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아쉽게도 청구고전성악학원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그 위치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창배 명창의 생가는 봉익동 1번지다. 순라길에 면해 있는 이곳을 국악하는 젊은이는 기억하길 바란다.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경기음악에 기반을 두고 민속음악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영희·성금연 부부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자격은 잃게 됐다. 두 사람과 국악을 하는 자녀가 거주한 곳이 봉익동 13번지다. 이곳은 날마다 그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지영희 명인은 제자에게 꼭 식사를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집에서 한 달에 소비되는 쌀이 몇 가마니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국악로 주변은 이렇게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온기만큼은 충만한 국악인의 삶의 터전이었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의 2022년 〈돈화문 나들이〉(9.5~9.15)는 젊은 아티스트와 신청자의 동반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중에서 가야금 연주가 주보라, 소리꾼 유태평양의 〈돈화문 나들이〉는 기록할 가치가 있다. 가야금 연주가 주보라는 〈돈화문 나들이〉를 통해 과거의 국악과 이를 대하는 자신의 시각을 연결해 즐겁고 알찬 투어를 만들었다. 그의 투어에 등장한 인물이 황병기1936~2018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가회동이다. 황병기는 6.25전쟁 때 부산에 설립된 국립국악원(용두산공원)에서 인연을 맺고 환도 후 국립국악원(운니동)을 통해 국악과 더욱 가까워졌다. 여기서 국악 강습을 받으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내인 소설가 한말숙이다.

소리꾼 유태평양의 〈돈화문 나들이〉는 진솔했다. 돈화문 지역의 국악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스승과 스승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스승은 조통달 명창, 스승의 스승은 박초월 명창1917~1983. 이들이 국악로 주변에 거주하면서 제자를 길러낸 것이 국악예술학교와 연관이 있다. 1960년 5월 13일, 국악예술학교가 관훈동 197-10번지 3층 양옥에 터를 잡았다. 박초월·김광식 부부를 비롯해 많은 국악인의 삶이 이곳과 연관이 깊다.

유태평양의 판소리는 박초월에서 조통달로 이어지는 소리다. 판소리 신동 유태평양이 소리를 하게 된 것은 아버지 유준열1958~2011의 절대적 영향이 크다. 유준열은 국악에 대해 선각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에 의해 어린이도 판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변성기를 거치면서 유태평양은 판소리를 잠시 쉬고 타악을 전공했다. 이 시절, 유태평양은 아버지와 함께 국악로에 오게 됐다. 〈돈화문 나들이〉에서 유태평양이 들려주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여기서 판소리를 배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또한 언젠가 국악로의 역사가 되고 신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 윤중강_국악 평론가 | **사진 제공** 서울돈화문국악당


국악인 유태평양

1 국악 명인·명창의 주요 활동지였던 국악로(현 돈화문로)를 국악인과 함께 탐방하는 서울돈화문국악당의 행사

눈에 보이는 사랑



〈쓰다〉 58호 포스터

작은 것에 진지할 수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아이들은 뒷면이 먼지로 범벅이 되어 더는 스티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작은 그림 조각을 서로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그걸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간직하며 귀하게 여기기도 한다. 귀여운 그림 위에 비닐이 덮인 종이 조각의 가치는 여러 친구 가운데 다름 아닌 자신에게만 그것이 주어졌다는 데 있다. 별다른 쓸모를 찾기 어려운 스티커를 손에 쥐고 아이는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며 뿌듯해한다. 그런 순박하면서도 깊은 감정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한 사랑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외면하고 훨씬 더 복잡한 방식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려 한다.

최근 일반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

램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방송은 이삼십 대 미혼 남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넘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끼리의 연애나 헤어진 연인이 마구 뒤섞인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 등 다양한 상황을 TV로 내보낸다. 이런 방송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극적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사랑에 얽힌 출연자의 사연과 감정이 복잡할수록 새로운 관계 안에서 풀어갈 이야기가 많아지고, 저들의 순탄치 않은 서사에 이입해 시청자가 떠들 수 있는 요소도 많아진다. 한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과 사소한 선택이 전부 논란거리가 되며 시청자의 논쟁에 논쟁이 덧붙는 것에 힘입어 방송은 방송 바깥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이 되어간다. 그럴수록 단순한 사랑이 지닌 미덕은 더욱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고주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고주호의 목소리가 엄청 중요해지고 말았다. 보통 변성기를 지나가는 애들 목소리는 꼭 꼬집힘당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아니면 깨물림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근데 고주호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잔잔하고 고요한데, 넓게 퍼졌다. 나는 이번에도 고주호가 주워준 지우개를 건네받으며 침을 꼴깍 삼켰다.
그다음은 수학 시간이었다. 틀린 답을 고쳐 쓰느라 고주호가 주워준 지우개로 필기를 박박 지우는 바람에 책상이 더 흔들렸다. 어김없이 흔들리는 책상 위에서 샤프 하나가 데구루루, 구르기 시작했다. 귓가에 여기, 하고 넓게 퍼지는 고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한 번만 더 들어보면 내 이상한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인송, 〈굴러가, 사랑!〉 중

동화 특집을 시작하며 자연스레 기대한 주제는 '성장'이었다. 아이들이 겪는 거의 모든 일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 없이 아이들을 건드린다. 그래서인지 일상의 어떤 사건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얼마만큼 자라게 하는지를 일곱 명의 작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했다. 그 가운데 어린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강인송 작가의 작품을 읽고 머릿속에 청명한 바람이 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주인공 서현은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가정사를 겪었다. 하지만 서현과 서현의 가족은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는다. 그저 더 명랑하고 단순하게,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겨내고 있다. 분명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서현의 마음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 건 그런 가족들의 노력 덕일 것이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서현은 다리 한쪽이 짧아 흔들리는 책상을 받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필기구가 기울어진 책상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그때마다 주호는 재빨리 움직여 물건을 주워준다. 주호는 반에서 알아주는 느림보다. 다만 서현에 대한 마음이 그를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 뿐이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필기구처럼, 서현의 마음은 수시로 떨어지며 바닥을 뒹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건 서현에게 주호가 있기 때문이다. 밥상을 차려주는 작은아버지와 잔소리로 걱정을 보태는 작은어머니의 다정한 손과 입도 있다. 강인송의 작품은 단순한 사랑이 지닌 미덕과 영향력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 이야기가 동화 속에 담겨 있다.

글 김잔디_[비유] 편집자 | **사진** 웹진 [비유]

열. iii

다시, 짙은 사랑과 생이 이어지는 소리

국악 브라스밴드 시도 X Tory X 민수민정 〈연희하는 여자들〉

나는 무사히 살아남아서 언니가 되고 싶다. 내가 사랑해 온 수많은 여성 작가들, 우리 엄마와 친척들, 축제에서 만난 기획자들과 인턴 시절 나를 이끌어준 팀장님처럼 멋진 언니가 되면 좋겠다. 새삼 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정하고 소중한지 생각해 본다. 차별과 혐오라는 연기가 뿌연, 나보다 더 거친 과거의 세계를 살아낸 언니들은 존재만으로도 큰 용기다. 그리고 또 다른 언니인 당신을 만났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언니'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멋있으면 '언니'라고 하지 않던가.) 당신은 '연희하는 여자'로 이 자리에 섰다.

"언니 생각이 나, 가끔. 사실은 내 생각을 하는 거겠지."

당신은 덤덤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떻게 연희를 시작하게 됐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당신의 언니들도 영상으로 이야기한다. 흐릿한 화면 속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당신의 얼굴에서도 빛이 인다. 그 기쁨을 보여주듯 당신은 '판굿'을 선보인다. 그러나 신명은 잦아든다.

당신은 앞으로 잔인하고 가혹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의 언니들이 그러했듯이 연희라는 당신의 생과 일상,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가족 사이에서 말이다. 30대를, 40대를 넘긴 여성 연희자는 출산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평생을 연습한 실력이지만 몸을 쓸 수 없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는 고스란히 경력 단절로 이어졌다. 그들은 임신 이전보다 떨어진 체력, 육아로 인한 연습량의 부족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없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생각했다. 그건 임신, 출산, 육아를 선택한 언니들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여성 연희자를 무대에 세우지 않는 세상 때문이라고.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쉽게 대체하기로 결정해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무대를 지속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러나 나의 분노와 다르게, 화면 속 목소리는 단지 무대가 너무 그립다고 말한다. 무대 위의 기쁨과 환희, 거기서 받는 에너지까지 연희는 그들의 일상이었고, 평생 해온 '일'이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공연하고 싶다는 꿈을 꾸며 연희는 자신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가늠할 수 없는 연희에 대한 단단한 사랑에 분노는 사라지고 어떤 먹먹함만이 남았다.

임신, 출산, 육아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할 것만 같다고 말하는 당신에게서 어떤 두려움과 막막함을 본다. 탈진하듯 'Prayer'를 공연하는 당신의 마음을 짐작한다. 언니가 없어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곳, 아무렇지 않은 이곳이 당신에겐 고민이 아니었을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평생 연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며, 그 끝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인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은 고민한다. 그리고 그런 당신 곁에서 연희자가 아닌 나도, 내 생각을 한다. 단지 연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를 낳고 일로 돌아가지 못한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서 단 한 명뿐이었던 여성 부장님을 생각했다. 아이를 가짐과 동시에 일을 하지 못했거나 많은 제약을 받았던, 가까운 여성들을



〈연희하는 여자들〉 공연 현장

떠올린다. 우리는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음악이 시작된다.

"내일도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당신이 선택한 것은 지금 연희하는 것이다. 당신의 음악은 때로 애절하고 단호하며 신이 나고 화려하다. 그 모든 곡을 관통하는 것은 힘이다. 당신과 언니들의 말 사이사이에 들리는 음악은 어떤 선언 같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나 잘하고 있다고 증명해 보이듯 연주한다. 추임새를 넣거나, 뒤에서 훌쩍이기도 하는 관객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곳에 앉아 있는 모두가 당신의 음악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연은 많은 이야기를 담은 듯하면서도 사실 단순했다. 여성 연희자인 당신의 팬이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당신이 음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게 하는 것이다. 공연은 관객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당신의 연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세상과 상황이 그를 배제할지언정 그 신명 나는 소리와 움직임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 무대 위 하얀 천에는 언니들이 아닌 당신의 동생이 있다. 10대의 여성 연희자가 죽을 때까지 연희를 하겠다고 다짐하듯 말한다. 마지막 곡 '아리아리'는 가장 화려한 소리로 대답한다. 너희들이 평생 연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좋은 연희를 해나가겠다며 시선을 주고받는다. 그게 얼마나 든든한 소리인지 객석의 동생인 나도 힘을 얻는다. 미소가 번진다. 아, 나도 힘을 내 언니가 돼야겠다.

글 김유경_쉼표가 많은 글을 씁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잠시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읽는 눈을 가지고 싶어 공연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 **사진** 안수민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마왕을 쓰러뜨리기까지 우리가 마주치는 퀘스트들:

고난을 딛고 작업을 발전시키기



워크숍 중 진행한 쇼케이스를 관람하고 있는 참가자들

최근 고도화되고 복잡화된 내러티브 중심의 비디오 게임video game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인공은 (그 과정이 어찌 됐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점차 성장하고, 마침내 목표인 ‘마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마왕을 무찌를 만큼의 역량을 가지기 위해 통과하는 숱한 난관은 NPCnon-player character,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캐릭터가 주인공에게 의뢰하는 각종 퀘스트를 통해 묘사된다. 주인공은 이 의뢰를 해결함으로써 게임 내 자원을 습득하고 경험을 늘리며 종국에는 ‘목표를 해결’할 정도로 성장한다.

하나의 퀘스트를 해결하면 다음 퀘스트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중첩되거나 연결되지도 않는 고난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경험치를 쌓아가는 이 과정은 어쩐지 예술에서 벌어지는 작업의 과정과도 닮았다. 결과적으로 공연이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은 ‘예술 작품’에 기여하게 된다. 작업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예술



작품의 재료로서 몸을 다루는 방법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 결과물로서의 공연이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까지 예술가가 마주치는 일련의 퀘스트들은 매우 다양하면서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린다.

이러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에서 지난여름 진행한 창작자 역량강화사업 '창작랩-느낌안무'는 바로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워크숍이었다. 안무가 황수현에 의해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워크숍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참가한 창작자가 서로의 퀘스트를 꺼내 놓고 같이 이야기 나눔으로써 작업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때로 리더인 황수현 안무가가 창작 과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태스크task를 주기도 하고, 참가자가 각자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작업을 직접 선보인 뒤 돌아가며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리더 황수현 안무가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참가자 모두가 수행했다.

"2인 1조가 돼 한 명은 눈을 감고 서울무용센터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다. 눈을 뜨고 있는 다른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끊임없이 주시하되, 절대로 어떤 도움을 주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할 때 예술가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에 의존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가야 한다. 길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열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된다. 끊임없이 나에게 엄습하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쉴 틈 없이 경로를 수정하고 오류를 발견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예술 작업의 과정일 것이다. 또한 내가 그렇게 눈을 감고 '버둥거리는' 과정을 누군가(관객)가 놓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봐 주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떤 공적 소통의 과정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장치 역시 예술 작업의 한 켠을 구성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예술 작품에 관해 결과물로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모양이 되는지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을까? '창작랩-느낌안무'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통해 몸의 특질을 찾고 퍼포먼스가 관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나 작업의 주제를 어떻게 '공적인 것'으로 빚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종류의 창작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난관, 퀘스트를 제대로 해결하고 유효한 경험으로 바꿔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아티스틱 리서치에 대한 접근과 고민이 더 많이 공유돼야 한다. 이 시대에 예술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마왕' 앞에 용기를 갖고 함께 맞서기.

글·사진 조형빈_[춤in] 편집위원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2022 November

Mon	Tue	Wed
	1 ● 공성장형 예술실험지원 '링크' 과정공유회 〈링킹-LINK-ING〉(~12. 11) ● 공연 <제39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공연 <임태훈 호른 독주회> ● 국악 <음과 선, 아로새기다> ● 콘서트 <러스 내한공연> ● 공연 <이효주 피아노 리사이틀> ● 연극 <종이풍선>(~11. 3) ● 공연 <패크랫(PACK RAT)>	**2** ● 공연 <21세기악회 뮤직 투데이21> ● 공연 <블루밍 트리오 연주회> ● 공연 <체리 듀오 리사이틀> ● 연극 <연희예술극장>(~11. 6) ●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11. 27) ● 전시 <안수인 개인전>(~11. 2) ● 전시 〈Data Dump: ___을/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11.5)
7 ● 축제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11. 7~19) ● 공연 <이자윤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신동일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 전시 <장성은 개인전>(~11. 7) ● 전시 <여성, 또 다른 추상>(~11. 7) ● 전시 <까레이치, 고려사람>(~11. 7) ● 연극 <러브레터>(~11.13)	**8** ●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11. 8) ● 공연 <제니윤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이수정 피아노 독주회> ● 공연 <2022 서울오페라페스티벌- 토토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 공연 <마이클 볼튼 내한공연>(~11. 9) ● 공연 <위플래쉬 필름 콘서트>(~11. 9)	**9** ● 공연 <2022 서울오페라페스티벌-푸른 눈의 목격자> ● 공연 <테너 이상규 독창회> ● 공연 <예진 영 아티스트 콘서트> ● 공연 <펠릭스 클리저 호른 리사이틀>
14 ● 공연 <제7회 포아 피아노연구회 정기연주회> ● 공연 <오텔라> ● 공연 <학교스타그램>(~11. 26)	**15** ● 공연 <유지연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콰르텟21 제58회 정기연주회> ● 공연 <이고르 레비트 피아노 리사이틀> ● 연극 <여덟 살 우주>(~11. 17) ● 연극 <두 영웅>(~11. 17) ● 뮤지컬 <드라큘라>	**16** ● 공연 <트리오 루카 정기연주회> ● 공연 <히트 투 하트 콘서트> ● 공연 <마트베이 데민 내한공연> ● 무용 <차이코프스키 발레 환타지> ●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리산시티, 알스트로에메리아, 아수아에서>(~11. 17) ● 2022 창작공간 가을시즌제 <소설가와 사회학자의 대화>
21 ● 공연 <김우진 피아노 독주회> ● 연극 <카운트>(~11. 24) ● 연극 <온 더 비트>(~1. 1) ● 전시 <그림자의 밤>(~12. 10) ● 연극 <서울빠뺑자매>(~11. 27)	**22** ● 공연 <바리톤 정효식 독창회> ● 공연 <제10회 성정콘서트> ● 공연 <남유리나 첼로 독주회> ● 공연 <한경 arte필하모닉 정기연주회> ● 공연 <클래시칸 현악 체임버 오케스트라> ● 연극 <마술고양이> ●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12. 11) ●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The Art of Bowing>(~11. 23)	**23** ● 공연 <김수영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차이코프스키 & 라흐마니노프> ● 공연 <김진경 첼로 독주회> ● 신당창작아케이드 13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HYBRID: CRAFT> ● 신세계 L&B 제휴전시 <One and More>(~11. 27) ● 행사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동행식 <같이 잇는 길>(~12. 4)
28 ● 공연 <FKJ 콘서트> ● 전시 <이인환각연쇄고리>(~11. 28) ● 뮤지컬 <정글라이프>(~12. 5)	**29** ● 공연 <김응수, 크리스토퍼 박 듀오 리사이틀> ● 공연 <11월, 가을 하모니> ● 공연 <곽지승 플루트 독주회> ● 공연 <조하경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세컨드 찬스>(~12. 17) ● 연극 <오펀스>(~2. 26) ● 전시 <2022 아트랩대전>(~11. 29) ● 행사 <제2회 서울문화예술포럼>	**30** ● 연극 <크리미널>(~11. 30) ● 연극 <뷰티블 라이프>(~11. 30) ● 연극 <택시 안에서>(~11. 30) ● 연극 <인플러그드>(~11. 30) ● 연극 <신바람 삼대>(~11. 30) ● 연극 <라면>(~11. 30) ● 뮤지컬 <프리즌>(~11. 30)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극장 쿼드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 기타 문화행사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은 지원사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행사를 폭넓게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신청 및 더 많은 정보 확인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Thu	Fri	Sat	Sun
3 ● 공연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22 기획연주회> ● 공연 <옵/신 페스티벌 2022: 인민 없는 경제>(~11. 3) ●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seoul stage 11	**4** ● 전시 <일상감각>(~11.4) ● 공연 <박수예 바이올린 리사이틀> ● 공연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 공연 <이오늘 콘서트> ● 공연 <2022 서울오페라페스티벌-토스카>(~11. 5) ● 2022비넥스트 페스티벌 <어느 날 문을 열고>(~11. 13)	**5** ● 공연 <트레드밀>(~11. 5) ● 공연 <구조의 구조>(~11. 5) ● 공연 <백만송이의 사랑>(~11. 5) ● 국악 <홍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11. 5) ● 국악 <청춘만발> ● 공연 <옵/신 페스티벌 2022: 엘리펀트>(~11. 6)	**6** ● 뮤지컬 <삼총사>(~11. 6) ● 뮤지컬 <헬로마마>(~11. 6) ● 연극 <충동 그리고 충돌>(~11. 6) ● 연극 <겹괴기담>(~11. 6) ● 연극 <해피투게더>(~11. 6) ● 연극 <쓱싹쓱싹>>(~11. 6) ● 연극 <즐거운 나의 집>(~11. 6) ● 전시 <새의자리>(~11. 6) ● 행사 <제2회 금천패션영화제>(~11. 16)
10 ● 연극 <횃불>(~11. 10) ● 연극 <누가 디케의 눈을 가렸나>(~11. 10) ● 공연 <배성우 첼로 독주회> ● 공연 <2022서울오페라페스티벌-소리 마녀의 비밀상자> ● 공연 <옵/신 페스티벌 2022: 뉴 일루전>(~11.13)	**11** ● 국악 <ㅊㅊ하다 페스티벌>(~11. 11) ● 공연 <앙상블 유포리아 정기연주회> ● 공연 <8개의 숨결> ● 공연 <2022 서울오페라페스티벌-사랑의 묘약>(~11. 12) ● 공연 <포레스텔라 콘서트>(~11. 12)	**12** ● 연극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11. 12) ● 연극 <클래스>(~11. 12) ● 무용 <제24회 생생 춤 페스티벌>(~11. 12) ● 무용 <2022한국명작무대제전>(~11. 12) ● 연극 <나는 사랑한다: 김명순 전>(~11. 12) ● 공연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제27회 정기연주회> ● 전시 <양승원 개인전>(~11. 12)	**13** ● 뮤지컬 <미드나잇>(~11. 13) ● 뮤지컬 <엘리자벳>(~11. 13) ● 뮤지컬 <배니싱>(~11. 13) ● 연극 <82년생 김지영>(~11. 13) ● 뮤지컬 <브론테>(~11. 13) ● 연극 <트루웨스트>(~11. 13) ● 연극 <헤르츠클란>(~11. 13) ● 전시 <지희킴 개인전>(~11. 13)
17 ● 연극 <휴먼코메디>(~11. 17) ● 공연 <우리가곡연구회 제47회 정기연주회> ● 공연 <2022롯데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 with 권서경> ● 공연 <강석원 클라리넷 독주회> ● 공연 <운명의 힘> ● 뮤지컬 <블루홀 속으로>(~11. 19)	**18** ● 공연 <2022 서울시향 프랑수와 프레데리크 기의 베토벤 '황제'>(~11. 18) ● 무용 <오늘의 음악> ● 국악 <역동과 동력> ● 공연 <핫펠트 콘서트> ● 공연 <샤를 리샤르 아몰랭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이종은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추교준 피아노 독주회>	**19** ● 연극 <코마>(~11. 19) ● 연극 <플라이트>(~11. 19) ● 연극 <코스트쉽>(~11. 19) ● 공연 <삼익 슈퍼밴드 페스타>(~11. 19) ● 무용 <기울어진 사람들>(~11. 19) ● 무용 <아크람 칸 컴퍼니>(~11. 19) ● 공연 <라이트 업 페스티벌> ●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플랫폼 프로젝트 공유 주간 <NONE WEEK>(~11. 27)	**20** ● 공연 <No.5> ● 연극 <오만과 편견>(~11. 20) ● 뮤지컬 <어차피 혼자>(~11. 20) ●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11. 20) ● 연극 <햄릿>(~11. 20) ● 연극 <너 자신이 되라>(~11. 20) ● 뮤지컬 <닭들의 꿈, 날다>(~11. 20) ● 전시 <월드웨더네트워크>(~11. 20) ● 전시 <홍순명 개인전>(~11. 20)
24 ● 연극 <이인환각연쇄고리>(~11. 24) ● 연극 <카운트>(~11. 24) ● 연극 <선희와 명희>(~11. 24) ● 공연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 연극 <KBS교향악단 제784회 정기연주회> ● 전시 <See, See, 각각>(~11. 27)	**25** ● 공연 <알렉 벤자민 콘서트> ● 공연 <브랜든 최 색소폰 콰르텟> ●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늬 콘서트> ● 공연 <필하모니 코리아 창단연주회> ● 무용 <자라는 자라>(~11. 26) ●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11. 26) ● 전시 <오색정원>(~11. 25) ●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허벅지에서 줄기까지>(~11. 27)	**26** ● 공연 <2022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 공연 <남진 콘서트> ● 공연 <홍서현 첼로 독주회> ● 공연 <박혜지 타악기 리사이틀> ● 공연 <정동하, 소향 콘서트> ● 연극 <제11회 그레이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THE PASSAGE>(~11. 27)	**27** ● 콘서트 <소리, 그녀가 되다> ● 연극 <프랑켄슈타인>(~11. 27) ● 뮤지컬 <드래곤 하이>(~11. 27) ●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11. 27) ● 연극 <하이타이>(~11. 27) ● 뮤지컬 <아갓탤>(~11. 27) ● 뮤지컬 <더 라스트맨>(~11. 27) ● 전시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11. 27)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공동기획공연 옵/신 페스티벌 2022 호루이안 〈인민 없는 경제〉

호루이안은 동시대 미술, 영화, 퍼포먼스, 예술 이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싱가포르 작가다. 렉처Lecture, 에세이, 필름 등의 매체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통치 시스템을 탐구한다.

일시 11월 2일(수)~11월 3일(목) | **장소** 대학로극장 쿼드 | **관람료** 3만 원 | **문의** 1577-0369, quad.or.kr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공동기획공연 옵/신 페스티벌 2022 보슈라 위즈겐 〈엘리펀트〉

모로코 지방에서 구전으로 전수된 형식을 기반으로 목소리와 타악기가 공존하는 이색 콘서트 형식에 매혹적 안무를 동시에 선보인다.

일시 11월 5일(토)~6일(일) | **장소** 대학로극장 쿼드 | **관람료** 4만 원 | **문의** 1577-0369, qu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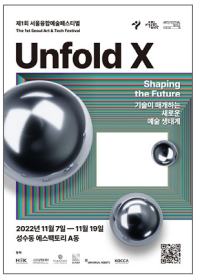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무대로 클래식, 무용, 북 콘서트, 국악,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8곳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026



서울문화재단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기술을 활용한 예술과 창작의 혁신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언폴드엑스UnfoldX'의 확장 페스티벌이다. 국내 공공분야 최대·최초의 융합예술 플랫폼인 언폴드엑스에서 국내외 창·제작자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11월 7일(월)~19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 | **장소** 성수동 에스팩토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6816, 4309



서울문화재단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김주희 〈어느 날 문을 열고〉

2022년 비넥스트BENXT 공연예술분야 선정작 〈어느 날 문을 열고〉가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에서 초연한다. 연극 〈어느 날 문을 열고〉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 돌아오지 않는 증발자, 익명화·가상화돼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11월 4일(금)~1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월요일 휴관) | **장소**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추후 공지 | **문의** 02-2676-0093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공동기획공연 옵/신 페스티벌 2022 토시키 오카다 〈뉴 일루전〉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인물인 토시키 오카다는 최근 영상을 연극 공간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극인 '에이조 연극'을 창안했다. 작품은 영상 속 배우의 이미지, 현실의 무대, 관객의 상상이 중첩되며 작동된다.

일시 11월 10일(목)~13일(일) | **장소** 대학로극장 쿼드 | **관람료** 4만 원 | **문의** 1577-0369, quad.or.kr



서울문화재단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아하 〈리산시티, 알스트로에메리아, 아수아에서〉

〈리산시티, 알스트로에메리아, 아수아에서〉는 전 세계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온라인상의 특정 커뮤니티(SNS 기반 창작 롤-플레잉 게임)를 무대화하고 전경화하는 다원예술 프로젝트다.

일시 11월 16일(수)~1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추후 공지 | **문의** 02-2676-0093



서울문화재단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주정현 〈The Art of Bowing〉

〈The Art of Bowing〉은 다양한 미학적 관점에서 활이라는 도구, '활질'이라는 연주자의 신체가 만나 발생하는 일을 퍼포먼스와 사운드 작업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다.

일시 11월 22일(화)~23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추후 공지 | **문의** 02-2676-0093



서울문화재단

2022 창작공간 가을시즌제 〈소설가와 사회학자의 대화〉

장강명 소설가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심보선 교수가 함께하는 이번 대담은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현대사회를 조명하며 문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탐구의 장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16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 2층 아고라(유튜브 '스팍TV/한국사회학회' 생중계) **관람료** 무료 | **문의** 02-324-4622, sfac.or.kr

서울문화재단

2022 신당창작아케이드 13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HYBRID: CRAFT_곁에 두고 싶은 공예〉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시즌제의 일환이자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로, 2022년 입주한 13기 31팀의 작가가 함께하는 기획전시다.

일시 11월 23일(수)~27일(일) | **장소** 코사이어티 서울숲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232-8832



서울문화재단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플랫폼 프로젝트 공유 주간 〈NONE WEEK〉

'안전하고 평등한 예술 환경,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마다의 답을 찾고자 나와 당신의 장르, 나이, 형태 등을 넘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를 공연,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인다.

일시 11년 19월(토)~27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62-9747

서울문화재단

2022 신당창작아케이드 X 신세계 L&B 제휴전시 〈One and More_선물하고 싶은 공예〉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와 연계해 진행하는 신세계 L&B 제휴 프로젝트다. 공예상품 개발 공모전의 결과 전시로 술잔, 식기, 데커레이션, 패키징 분야의 선정작 24점을 전시한다.

일시 11월 23일(수)~27일(일) | **장소** 코사이어티 서울숲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232-8832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동행식 〈같이 잇는 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개관 첫 번째 행사로 동행식 〈같이 잇는 길〉을 진행한다. 센터의 향후 계획 발표, 장애예술인 좌담회(유튜브 동시 송출), 지난 15년을 돌아보는 아카이브 및 작가의 작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

일시 11월 23일(수)~12월 4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423-6675

서울문화재단

행사 <제2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공연, 주제 발제,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일시 11월 29일(화) 오후 3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290-7060



서울문화재단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주혜영 〈허벅지에서 줄기까지〉

2022년 비넥스트BENXT 공연예술분야 선정작 〈허벅지에서 줄기까지〉는 관객참여형(워크숍형) 무용 공연으로 무용수로서 요청 혹은 강요받았던 몸과 움직임에서 탈주하고 비인간적 존재인 식물에게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보는 실험적 프로젝트다.

일시 11월 25일(금)~27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갤러리 M30 | **관람료** 가격 추후 공지 | **문의** 02-2676-0093



서울문화재단

2022 공성장형 예술실험지원 '링크' 과정공유회 〈링킹-LINK-ING〉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예술실험지원 '링크' 참여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공유하는 행사다. 참여예술가 20명(팀)의 전시 11회, 공연 8회, 책 발간 2건 등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14일(금)~12월 11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3-7217



서울문화재단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방지원 미래무속 〈THE PASSAGE〉

〈THE PASSAGE〉는 굿판의 제물로 희생되는 동물(생명체)을 통해 굿 세계관에 함축된 위계적 구조, 인간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살펴보고 '굿'이라는 행위가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 고찰하는 작품이다.

일시 11월 26일(토) 오후 7시 30분, 27일(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가격 추후 공지 | **문의** 02-2676-0093



금천문화재단

환경인형극 〈패크랫PACK RAT〉

자연, 인간, 동물의 삶과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 버드의 명랑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로, 10가지 다양한 동물 인형으로 창작한 멀티미디어 인형극이다.

일시 11월 1일(화) 오전 11시, 오후 7시 | **장소**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627-2989



내 마음의 문화발자국 금천문화재단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뮤지컬 〈블루홀 속으로〉

금천문화재단의 첫 제작 공연으로,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거북이 기치와 역사 속 영웅 이순신 장군이 그려내는 소통과 공감의 가족 뮤지컬이다.

일시 11월 17일(목) 오전 10시, 18일(금) 오전 10시·11시 30분, 19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2627-2989



서초문화재단

전시 〈오색정원〉

인류의 안녕을 소망하는 민화 전시다. 신형록이 기획하고 오명희가 참여작가로 함께한다.

일시 10월 4일(화)~11월 25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관) | **장소** 심산기념문화센터 B1 서리풀 休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chocf.or.kr



내 마음의 문화발자국 금천문화재단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행사 〈제2회 금천패션영화제〉

금천구 특화산업인 패션산업과 영화를 결합한 국내 최초 '패션'을 주제로 한 영화제다. 배우 겸 감독 구혜선과 이주영, 감독 윤성호의 연출작 등 총 44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일시 11월 4일(금)~6일(일) | **장소**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7709-3219



서초문화재단

전시 〈그림자의 밤〉

멈춰진 일상을 되돌아보고 도시의 풍경을 낯설게 보여주는 전시이다. 김태희가 기획하고 옥세영이 참여작가로 함께한다.

일시 11월 12일(토)~12월 10일(토)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 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ripulgallery.com



서초문화재단

뮤지컬 〈정글라이프〉

정글 같은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밤낮 고군분투하는 직장인의 오피스 라이프를 리얼하게 담은 뮤지컬이다.

일시 11월 23일(수)~12월 3일(토) 화~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월요일 휴관)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만 9세 이상 | **관람료** 5만 5천 원 | **문의** 02-3477-2805, seochocf.or.kr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연극 〈서울빠뻥자매〉

20세기 초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작가 장 주네의 작품 〈하녀들〉이 연극 〈서울빠뻥자매〉로 재탄생했다. 기존 작품인 〈하녀들〉에서 더욱 심화된 역할극과 극중극 형태를 통해 실제 빠뻥자매 사건을 흥미롭게 다뤘다. 한 집안의 하녀들이었던 빠뻥자매는 자신들의 여주인과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경찰에 체포됐는데 작가 장 주네가 이 사건을 모티프로 연극을 만든 바 있다.

일시 11월 18일(금)~27일(일) | **장소** 씨어터 조이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505-041-0707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강허달림 2022 콘서트 〈소리, 그녀가 되다〉

재즈, 블루스, 팝 장르를 초월해 독특한 색깔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림이 2022년 콘서트 〈소리, 그녀가 되다〉로 돌아온다. 12년 만에 발표하는 새 정규 앨범에 수록될 신곡을 처음 들어볼 수 있다.

일시 11월 27일(일) | **장소** 구름아래소극장 | **관람료** 8만 8천 원 | **문의** 070-8690-8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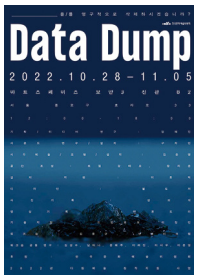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피아니스트 김진석 베토벤 시리즈 5 〈No. 5〉

피아니스트 김진석이 2018년 화가 클림트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독주회 〈클림트가 사랑한 베토벤〉을 시작으로 베토벤의 서거 2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10회의 공연으로 기획한 시리즈다. 여느 전곡 시리즈와 다르게 피아니스트가 스토리텔링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직접 해설하며 콘서트 도슨트 역할까지 담당했다.

일시 11월 20일(일) |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70-8811-0513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전시 〈Data Dump: ___을/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감각적으로 뇌리에 저장한 기억은 오류를 반복한다. 전시 〈Data Dump: ___을/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는 디지털 데이터 삭제와 원초적 데이터 복구의 제의적 수행을 통해 우리의 필연적 망각과 오류로 인해 더욱 감각적으로 기억하며 주체적으로 인지적 창조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복기한다.

일시 10월 28일(금)~11월 5일(토) 오후 12시~6시(※월요일 휴관) | **장소** 아트스페이스 보안3 신관 B2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20-8409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전시 〈일상감각〉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앙일보, 중국저장성관광청, 매거진 PAPER가 전시 〈일상감각〉을 개최한다. 이규한, 김현희, 민승기, 연호경, 오시영 작가의 유니크한 작품과 함께 한국 사람의 일상을 빛내 주는 물건 15점, 중국 사람의 일상을 빛내 주는 물건 15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일시 10월 29일~11월 4일(※30일과 31일 휴관) | **장소** 이길이구 갤러리 | **관람료** 무료



연극 〈러브레터〉

앤디가 멜리사의 어머니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시작으로 앤디와 멜리사의 여행은 시작된다.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앤디와 편지 쓰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멜리사는 늘 대척점에서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인연은 계속된다. 편지 쓰기와 함께.

일시 10월 6일(목)~11월 13일(일) 화·목·금 오후 7시 30분, 수·토·일 오후 2시·5시(※월요일 휴관)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대상** 14세 이상 |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전시 〈see, see, 각각〉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주변의 모습을 관찰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풍경을 마주해도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낀다. 이번 전시는 각자의 시간과 시각,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일시 10월 15일~11월 27일 오전 9시 30분~오후 9시(※월, 공휴일 휴관) | **장소** 문화실험공간 호수 | **문의** 02-3431-9784

2022 서울시 창작공간 가을시즌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동행식

같이 걸음

장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31 자유빌딩 2층

일시

장애예술인 좌담회(유튜브 동시송출)
11.23.(수)

아카이브 전시
11.23.(수)~12.04.(일)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링크
url.kr/wgl4zd

온라인 독자 엽서

정창재 님(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시청에서 봤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지하 미감 어드벤처'를 꼽고 싶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디자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약속 장소로도 손색없는 깔끔한 지하철 역사, 앞으로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서울의 지하철 역사 주변의 동네, 마을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매달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집후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지나간 노고에 박수를, 새로운 시작엔 응원을!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다시 만난 (신)세계. 홍보, 홍대, 그리고 수정사항들.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개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자신보다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이제 문화로 채울 시간입니다! **이선진 객원 기자**
오늘도 장애 없는 꿈을 꿉니다. **장보영 객원 기자**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The 1st Seoul Art & Tech Festival

Unfold X

Shaping the Future

기술이 매개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







2022년 11월 7일 — 11월 19일

성수동 에스팩토리 A동

협력

HEK House of Electronic Arts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G.MAP

UNIVERSAL ROBOTS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 2022

테마 토크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이슈 1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

이슈 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슈 3
원로배우 티켓 파워

문화인
국악인 안숙선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ISSN 1739-774X